

全通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 하는 자는 그릇된 생각에 머물러 진실을 모른다.  
〈조희룡·정서동 11월〉

# 東大新聞

간행인	김민	발행처	동국대학교
편집장	김민	발행일	매주 수요일
주주	김민	발행인	김민
발행부서	동국대학교	전화	780-715

피낸 곳 :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명동3가 26(☎78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서상동 707(☎770-2057)

제112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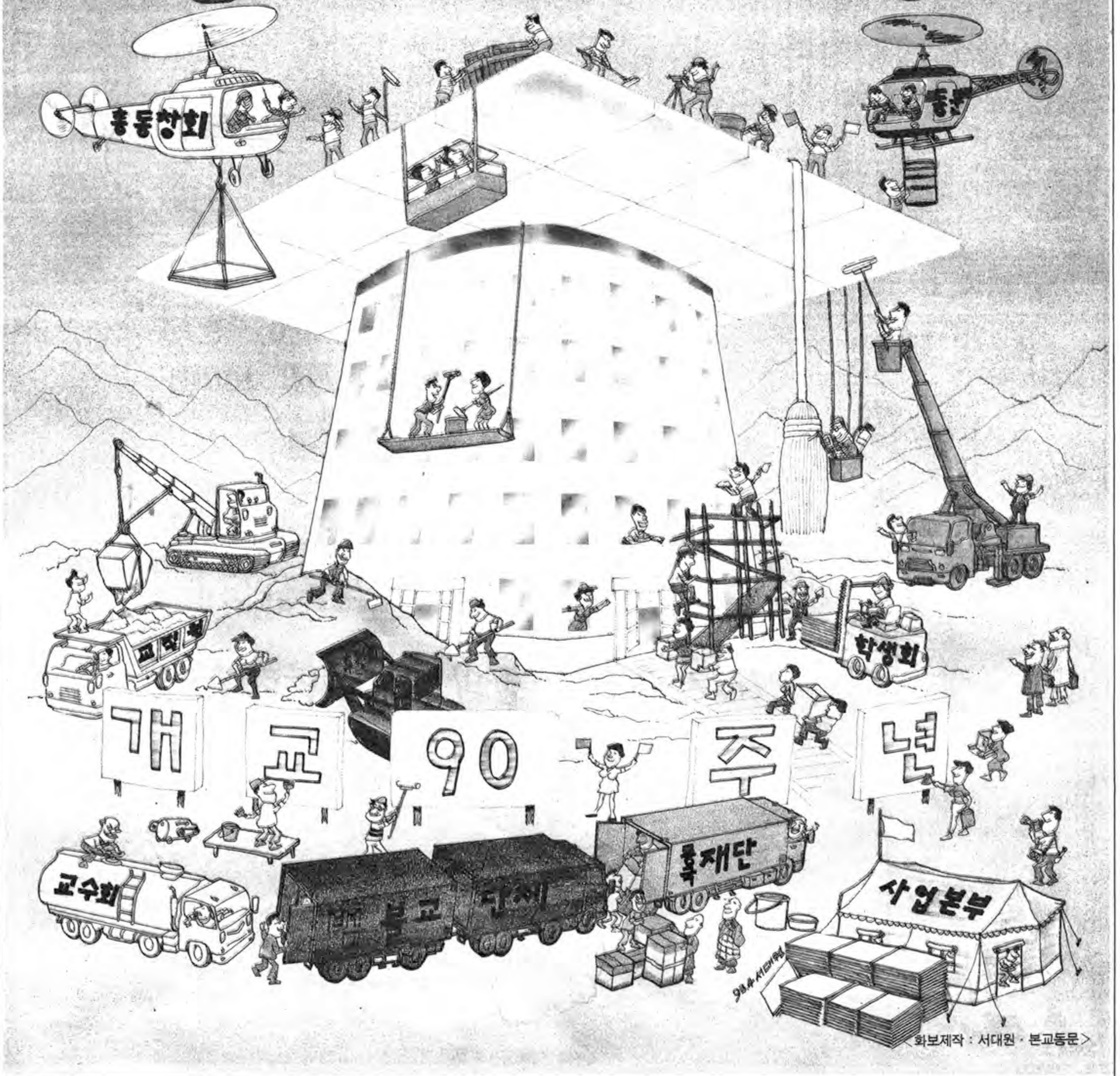
(주간)

1994. 1. 1. 창간번호 단-10  
1955. 10. 13 제3호 창간호(71)일인기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3년(단기4326년) 5월5일 (수요일) [ 1 ]

# 동국중흥



화보제작 : 서대원 · 본교동문 >

사설

개교 87주년을 맞으며

본교는 1993년 5월 8일자로 개교 8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본교는 구한말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들이 우리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이것은 다음인 이념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대학이 지향할 목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불분명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대학의 상황성은 하나의 역사적 흐름에서 연유한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어제의 상황이 오늘과 다르고 오늘의 상황이 내일과 같을 수 없다.

東國漫評

김상남



분민정부의 기치이래 개혁을 역사적 요청으로 설정하여 신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두 달을 넘어가고 있다. '신한국'창조의 당면과제로서 부정부패의 척결, 경제회생 그리고 국가기강확립을 제시한 가운데 신정부는 그동안 인사대신, 인가부 축소개편, 안가철거, 청와대주변개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신경제 1백일 계획' 확정발표 그리고 사정기관 본격가동등 의욕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첫번째로 정부는 개혁정책에 있어서 부정부패의 척결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하여 이에 온 힘을 기울여야한다. 이는 정이다. 한국사회의 부정과 부패는 뿌리깊이 고착화되어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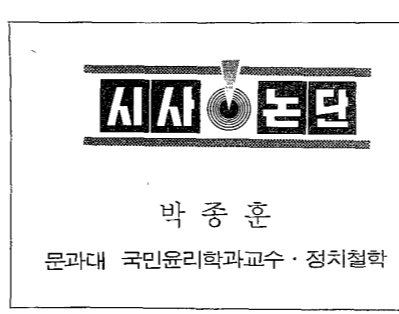
◇93 총학생회 총노선 기초해설

실제로 시대를 반영하는 대중의 정서는 변하고 있다. 김영삼정권 출범이후 국민들이 정부에 거는 기대는 크다.

군사정권의 억압속에서 현실의 온배와 상식의 좌절만을 경험했던 '더러운 세상'은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떠나가고 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무시하던 군부의 발도도 떨어지고 청와대조차 감사의 성역일 수 없었다는 발표까지 있고 보니 국민들에게 '개혁'은 정말 신나는 일이다.

사회적 이념의 일대 변화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달 30일 원흥관(G102)에서 열린 93년도 상반기 학생대표회의에 제출된 서울캠퍼스 제25대 총학생회(회장 최순호·국과과)의 총노선기초는 이러한 대학사회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한다.

처럼 국가의 근간인 공직사회가 썩는데 국가전체의 안녕과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부정부패의 근절은 일차적으로 공직사회에서부터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종훈 문과대 국민윤리학과교수·정치철학

부정부패척결...경제회생의 열쇠

공직자 윤리법 제정과 기대

에서 있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경제회생은 크게 우려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일시적인 경제회생은 어떤 면에서는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환경에서 자생력을 키워 나가도록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사치를 멀리하고 집약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의 방만했던 거품경제를 바로 잡는데 일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정부패척결을 통한 개혁의 효과가 경제회생에 서서히 작용하게 된다면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 되고, 이는 다른 한편 경쟁력있고 내실있는 자율적 경제체제로의 이행에도 결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는 경제회생에 너무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문제의 지나친 부각은 개혁의 일차적 목표가 되어야 할 부정부패척결에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희석시킬 우려가 있으며 더 나아가 개혁진반에 걸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것이 개혁의 열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세번째로 다른 모든 개혁들도 우선은 부정부패근절과 결부시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의식개혁이나 경제개혁등 모두를 일차적으로는 부정부패척결이라는 주요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추진시켜야 하겠다는 것이다.

다. 경제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금융실명제도 경제개혁차원이 아닌 부정부패척결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 82년과 88년 두차례에 걸쳐 추진된 바 있는 금융실명제는 그때마다 경제적 '부작용'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세로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지켜질 수 있는 내용으로 제정하되 그 시행에 있어서는 엄격성과 지속성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 할 수 있다. 부정부패 척결 공직자 부정부패의 척결이야말로 다른 개혁은 물론 경제회생과 국가기강확립을 이룰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속에서 총학생회가 제시하고 있는 학생회의 사업방향은 변화하는 시대속에 건강한 대학인의 삶을 찾자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학우들의 삶이 급속한 사회변화

폭된 여론조작이었다 할지라도 이 제는 국민들이 '잘한다'라고 손뼉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관으로 현실을 넘나드는 운동을 지양하자. 이것은 기초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대중추수'나 '근본없는 운동'이라는 비난을 서슴치 않고 있으나 총학생회는 대중성외로의 접근만이 운동전선의 살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민주연합이란 결국 동국대생리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학교발전 도모를 꾀하는 연대차원의 본체기에서 출발한다. 위 두가지 운동은 모두 학원을 변혁운동의 근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생활정치

운동이념 변화에 대한 대안 구축

민족동국 자주중흥운동 제창 학원개혁

한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운동권은 정치무쟁만 한다'라는 국민들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어야 한다.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속의 정치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주도하고 국민들의 거대한 곳을 시원하게 열어 줄 수 있는 세력이 되어야 한다.

라 학내에 민족적 질서를 접어 나가자는 의도이다. 총학생회는 이러한 민족동국자주중흥운동의 세부 기조로 동국대생리운동과 지역민주연합을 주장하고 있다. 동국대생리운동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 미래 동국의 발전계획을 내오는데 학생회가 중심으로서 나서고 실제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것은 곧 학생회내의 화합과 소모임을 활성화시켜 학생들의 생활 곳곳에 학생회가 자리하게 하고 간담담리든지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사업을 학생회가 받아안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파내 불꽃과 한티를 만든다든지 학습기자제 단체추진을 추진하는 등의 사업을 이의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25대 총학생회에서 발표한 총노선은 그 기초에서 변화하는 학생대중에 기반한 정책들을 배려하고 있다. 일부 우편향적인만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이는 학우대중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생활정치의 시작



현대자동차기부상열차 개발팀

공해는 물론 소음과 진동이 전혀 없는 21세기 교통의 주역, 자기부상열차 개발— "어려운 것 없다. 일단 레일 위에 열차를 띄워보자"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자신감이 있었기에 우리는 과감히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초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만든 '꿈의 특급열차'를 달리게 하기 위해...

Advertisement for Hyundai's 'dream train' (maglev train) for EXPO '93.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train and text in Korean and English. The text includes '21세기, 現代의 '꿈의 열차'가 달린다' and '— 현대자기부상열차 개발 성공 —'. The train is labeled 'HYUNDAI EXPO '93' and 'MAGLEV'.



21세기를 여는 현대의 첨단기술 - 그 주역을 찾아서 (현대자동차)

# 개교90주년 기념사업회 발족

## 동국학술문화관 건립등 사업 전담 추진

발족후 뚜렷한 사업전척을 보이지 못하던 개교90주년 기념사업본부 사업회와 후원회 조직 구성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하는등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3일 구성된 개교90주년 기념사업회는 모든 사업을 총괄하게되며 회장은 당연적으로 민병천총장이, 고문은 재단 이사장과 총동맹회장, 조계종 총무원장등으로 구성했으며 자문위원으로는 재단임원진과 역

대총장등을 위촉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별 8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분과위원회는 △기획홍보위원회 △재무위원회 △학술문화관건립위원회 △의료발전위원회 △3천 원불(願佛) 봉안위원회 △국제학술행사위원회 △첨단과학연구위원회 △90년사 편찬위원회등이다.

이들 위원회들은 개교90주년 주요 기념사업으로 선정되었는

동국학술문화관 건립과 동국의료인 확충(분당 한방병원 건립, 포항병원 증축), 경주지역 과학관 건립등의 사업을 전담해 추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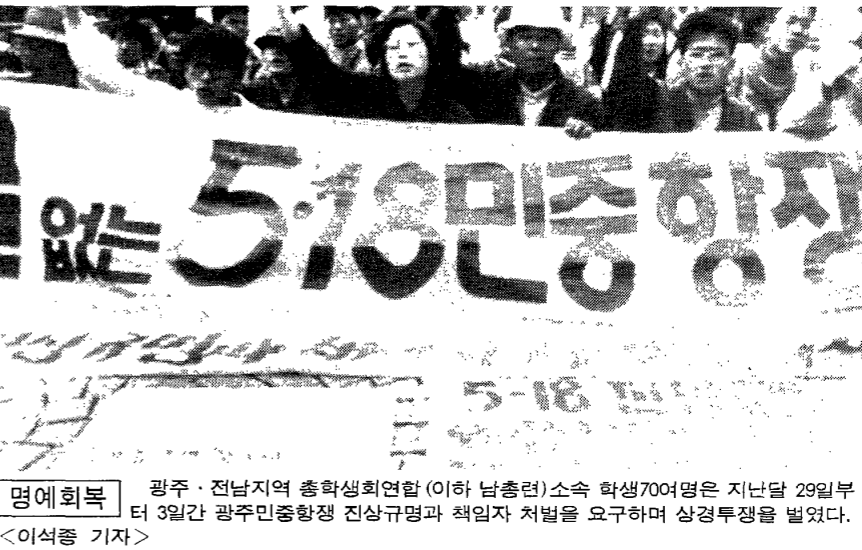
기념사업회의 발족에 따라 개교기념사업본부는 사업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한 기금마련사업만을 주관하게 된다.

이에 개교기념사업본부는 모금목표액을 1백억원으로 잡고 학내계주제, 동문, 불교계등을 대상으로 기금마련을 위한 홍보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계획중인 홍보대책은 총동맹회를 통한 동문연계발송과 이벤트 행사를 기획중이다. 이같은 행사를 통해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동문 연인과 프 로야구선수 초청 '동국발전발원도입'등을 개최해 기금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3천원불봉안을 목표로 각 불교 종단과 교구본사등에 관유해 기부금을 요청할 계획 이다.

이에 개교90주년기념사업본부 부부장 박동기씨는 "동국의 발전은 한국불교의 발전으로 불교신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하며 범 불교적인 기금마련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총학 봉원사 부지 매각 서명운동 전개

####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 될것"

제25대 총학회장(회장=최순호·국교4)은 지난달 30일 각 단과대 학생회에 서명운동을 배포하고 본격적인 봉원사부지 매각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관원기사 11면)

봉원사부지 매각추진운동본부 부장 이상호(총학학생회장 야간부역4)군은 "지난 4월초 있었던 의견개진운동에서 80%이

상의 학생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할 뜻을 보였고 이에따라 학생들의 결의를 동력으로 삼아 서명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단순히 명목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는것이 아니라 불교병원 건립등 수익사업체를 통한 지속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

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총학회회는 민병천총장, 오복원이사장에게도 봉원사 부지매각을 위한 전 동국인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했으나 이의 회신이 없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 동국중흥한마당 무산 규탄대회

#### 총장실, 이사장실등 접거 농성

동국중흥 한마당 무산규탄 및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1만명 결의대회가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제25대 총학회장(회장=최순호·국교4) 주최로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최순호 총학학생회장은 "동국자주중흥이라는 순박한 믿음 하나로 동국금을 힘의발부하고 이후 동국중흥 한마당으로 학내·외 제 주체들의 의지들을 모아내고자 했으나 학교당국과 재단의 기만적 행동으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믿음이 산산히 깨졌다"고 밝혔다.

이과대학총장 김태웅(통계4)군은 동국중흥 한마당 무산경과보고 및 규탄발언을 통해 "학교당국은 기약한이 제철되고 공동행위의가 시화되고 있는 시점까지 원칙적인 동의의

사안을 반복할 뿐 계획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히고 "동국중흥한마당 성사를 위해 학교발전은 구제되고 있는 세력에게는 용납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원자주화투쟁위원장 김수정(사 4)군은 교육비리 폭로발언을 통해 현재 가장 큰 비리로 재단의 인사전행을 지적하고 강성운(행정대학원)교수와 윤해진(불교아동학)교수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재정확보방안에 대해 분과대 학생회장 이영조(사4)군은 "턱없이 부족한 학교의 재정확보를 위해 봉원사 부지 매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 동국인이 서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실천행사로 집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총장실, 이사

장실, 재단사무처 등 일부 본관 사무실을 접거하고 투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장식, 재단사무처 등 일부 본관 사무실을 접거하고 투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신임 학생처장에 노완섭교수

학교당국은 최순열(국어교과) 학생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후임에 노완섭(식품공학)교수를 지난 1일자로 임명했다.

# 개교 87주년 기념식 열려

## 공로자, 장기근속자 등 표창

개교 87주년 기념식이 오는 7일 11시 중강당에서 민병천 총장, 오복원 이사장등 내외의 인사, 학생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날 기념식은 삼귀례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발원문 낭독, 학교연혁보고, 개교기념공로패 수여, 총장기념사, 이사장기념사, 동창회축사, 사후서신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박근서(취업과)씨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노선 철거를 위한 대책위원회 실무담당자로 노선변경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거டு적으로 추진될수 있게한 공로로, 박정후(취업과)씨는 취업률과 취업알선율을 높인 공로로, 김명숙(경영대학원 교학부)씨는 각종 문물철거와 폐지수집운동에 헌신수범한 공로가 인정돼 직원인사규정에 의거해 공로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주중환(농업경제학)교수등 58명은 장기근속, 근무 표창을 받게된다.

이밖에 장기근속, 근무 표창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30년 근속표창 △주중환(농업경제학) △강창순(관리처장)

◇20년 근속표창 △권기중(불교학) △김경계(농학) △이정덕(가정교육) △김병수(체육부) △김봉우(실업농장) △임규진(역정원)

◇20년 근무표창 △전영화(미술학) △마호석(총무처)

◇10년 근속표창 △김정근(영문학) △이기동(사학) △강재훈(국민윤리학) △김태부(수학) △손해복(법학) △김보현(경찰행정학) △조은(사회학) △황정규(경영학) △김석봉(경영학) △이명훈(농학) △박인국(농업생물학)

특, 학교연혁보고, 개교기념공로패 수여, 총장기념사, 이사장기념사, 동창회축사, 사후서신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박근서(취업과)씨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노선 철거를 위한 대책위원회 실무담당자로 노선변경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거டு적으로 추진될수 있게한 공로로, 박정후(취업과)씨는 취업률과 취업알선율을 높인 공로로, 김명숙(경영대학원 교학부)씨는 각종 문물철거와 폐지수집운동에 헌신수범한 공로가 인정돼 직원인사규정에 의거해 공로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주중환(농업경제학)교수등 58명은 장기근속, 근무 표창을 받게된다.

이밖에 장기근속, 근무 표창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30년 근속표창 △주중환(농업경제학) △강창순(관리처장)

◇20년 근속표창 △권기중(불교학) △김경계(농학) △이정덕(가정교육) △김병수(체육부) △김봉우(실업농장) △임규진(역정원)

◇20년 근무표창 △전영화(미술학) △마호석(총무처)

◇10년 근속표창 △김정근(영문학) △이기동(사학) △강재훈(국민윤리학) △김태부(수학) △손해복(법학) △김보현(경찰행정학) △조은(사회학) △황정규(경영학) △김석봉(경영학) △이명훈(농학) △박인국(농업생물학)

### 특별학술연구비 수혜자 확정

#### 서운길, 조병찬, 조암 교수

연구의욕고취를 위해 매년 학문발전공로교원에게 지급하는 특별학술연구비 수혜자로 서운길(불교학), 조병찬(농업경제학), 조암(산업공학)교수가 선정되었다.

인문과학분야 수상자 서교수는 이번 특별학술연구비 수혜를 위한 논문심사에서 '신라의 염선사와 그의 밀교 사상'이라는 논문 및 저술등이 1,2위에 선정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과학분야 수상자 조

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상하는 출판문화상 수상작인 '자유시장 경제사연구'등의 저서등이 두각을 나타낸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연과학분야의 조교수는 '이인식 임체영상의 시각분석에 관한 인간공학적인 연구'라는 논문등으로 특별학술연구비 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이들 교수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7일 열리는 개교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 보수

현대산업의 생산리인은 분업화와 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품의 하나하나가 만일 순정품(純精品)이 아닌 불량품으로 결합되었을 경우 그 제품의 성능은 결합투성이 되어 소비자의 피해를 말할 것도 없고 그 회사도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품의 향상만이 그 생산의 튼튼한 기반이 되어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 역시 불량한 인간이 아닌 순정의 선량한 사람을 원한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달리 불량품의 인간이 양산(量産)되어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심지어 올바른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소

### 선불장(選佛場)

박한 이웃들을 이끄는 경우가 수 없이 많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계에서 등등, 생각하는 것마다 행통하는 일마다 불량품이 아니면 유해한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교육은 이러한 모든 생산의 주체가 되는 인간의 제반

부처님의 45년 동안의 가르침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선(善)의 추구였다. 완전한 인간 즉 결함이 없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가르침이었다. 그 가르침의 한 예를들면 우 리들의 실수와 비행은 올바른 견해가 아닌 비틀어진 사견(邪見)으로 인하여 바르지 못한 언어와 행사는 인연 행

의 책임과 의무이다. 이것은 제품이 아니라 때문에 불량품의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반쯤이나 손해배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실례로는 그보다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온갖 지혜를 총동원 하여 지혜의 사상으로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중국의 유명한 고봉원묘선사(高峰原妙禪師)는 수도원을 선불장(選佛場)이라 불렀다. 그 부처님 눈앞에 학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연기의 불필적 즉 모든 존재는 독존이 아닌 상호 의존의 관계라는 공(空)의 이치를 깨달은 급제(及第)한 사람을 말하였다.

우리 학교의 건학이념도 바로 이러한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선불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崔法慧

### 제35기 수습기자 모집

대학원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에는 우리시대를 예리한 필봉으로 파헤쳐 나갈 의식있는 남녀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명  
 ②응시자격: 1학년 남·여재학생  
 ③모집분야: 일반 및 문화·사진기자  
 ④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함)  
 ⑤원서접수: 서울 5월26일(수) 오후4시까지  
 경주 5월26일(수) 오후4시까지  
 ⑥시합일자: 서울 5월26일(수) 오후5시  
 경주 5월26일(수) 오후5시  
 ⑦시합과목: 1차 필기·상식·논술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⑧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⑨시합장소: 학원관 J201(서울캠퍼스)  
 원호관 A301(경주캠퍼스)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장학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동대신문사

## 1993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특역전문학과, 일어일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한문학과,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조경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체육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나. 박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한문학과,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 2. 모집인원

석사과정 000명  
 박사과정 00명

### 3. 시험과목 및 내용

가. 석사과정

1) 시험과목: 가) 영어 나) 전공 과) 구술고사  
 2) 시험내용: 영어시험은 4문항(특해력 측정)으로 출제되며, 전공시험은 각 학과 공통된 수과목에서 출제하며, 구술고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나. 박사학위과정

1) 시험과목: 가) 영어 나) 전공(공통, 세부전공) 다) 제2외국어(해당학과에 한함) 라) 구술고사

2) 시험내용: 가) 영어시험은 4문항(특해력 측정)으로 출제되며, 전공시험은 학과 공통과목 및 세부전공 과목에서 출제하며, 구술고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나) 제2외국어 부과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철학과, 한의학과  
 다) 제2외국어 시험과목: 불어, 독어, 일어, 범어, 한문, 중국어 중 택일(단, 범어는 인도철학과, 한문은 국어국문학과, 철학과(동양철학 전공)에 한함)

3) 박사학위과정 특별전형: 4년제 대학원임교수이상(전문대포함)자 또는 공인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자

### 4.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93. 5. 26(수) - 6. 1(화)  
 나. 원서접수기간: '93. 5. 31(월) - 6. 1(화)  
 다. 접수장소: 본 대학원 교학부  
 라. 시험일정 및 장소: '93. 6. 11(금) 10:00 동국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부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 260-3093, 260-3094

동국대학교 대학원

## 직원 모집

### 1. 모집부문 및 응모자격

모집부문	근무지	응모자격	인원
행정직 I·II	서울	0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0 1963. 6. 1 이후 출생한 자로서 남자는 병역 또는 면제자	각 직역
	경주	0 행정직 II는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0 사서직은 도서관장 경력자로서 정서서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0 각 직 공역 P·C 사용 가능한 자	간 명
특수직	서울	0 예비역 대위 이상 장교 출신으로 1953. 1. 1 이후 출생한 자	

### 2. 전형 방법

가. 행정직, 사서직: 필기시험(영어, 논문), 면접  
 나. 특수 직: 면접

### 3. 제출서류

가. 지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나.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통  
 다. 대학 전학년 성적 증명서 1통  
 라. 불교도 신행증(조계종산하 사찰, 본교소정양식) 1통  
 마. 경력·보훈증명서·자격증 사본(해당자)

###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93. 5. 6(목) - '93. 5. 11(화) 17:00한

### 5. 시험일시 및 장소

'93. 5. 15(토) 10:00 서울캠퍼스 교사장

### 6. 지원서 교부

서울 및 경주캠퍼스 총무과  
 전화: (02) 260-3065~6, 0561) 770-2063

### 7. 접수처

서울캠퍼스 총무과(우송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지원서 상단에 희망 근무지를 주서로 표기할 것

동국대학교

## 수계 대법회

귀의 삼보 하옵고, 자비로우신 부처님의 은혜로 하시는 업무마다 여의로우시길 기원 합니다. 본 정각원에서는 전통국인 춘계 수계 대법회를 거행 합니다.

계(戒)란 삶의 지침이요, 올바른 생활을 위한 근본바탕입니다. 동국의 모든 가족들께서는 이번 수계법회에 동참하시어 불연(佛緣)을 맺으시고 바른 삶의 지표를 확립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전 계 사: 오복원 대총사  
 일 시: 2537(1993)년 5월 17일(월) 오후2시  
 장 소: 정각원 대법원  
 수계접수  
 기 간: 1993년 5월 6일~5월 13일  
 방 법: 전화 또는 소정양식에 따라 접수  
 장 소: 정각원 사무실  
 문 의: 전화 260-3015~6 직역)268-2314

정 각 원 장

특집

개혁의 소외속에 봄을 맞는 사람들

왜 개혁은 구조적 것이어야 하나

김영삼 정권은 집권초부터 강도 높은 개혁의지를 보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놀라울 정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개혁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시민들 중 많은 이들은 우리 사회의 부패의 깊이에 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그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해방 후의 이승만 정권 이래 우리나라는 부정부패를 구조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의 형성에 일체의 쪼갬기를 쏟아내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반민족 사법들을 처벌하기는 커녕 이들에게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맡기면서 독립국가로 제대로 출발할 수 있었겠는가? 마땅히 전일과들을 처벌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부엌을 가져오게 하는 국민 모두에게 선명히 보여야 했고 이를 통해서 독립국가의 정치와 기강을 율곡케 세웠어야 했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이 적극적 후원을 보내면서도 그 방향에 비판적이거나 우려를 보내는 인사들이 있다. 이들의 비판이나 우려의 핵심은 대통령은 부패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구조의 개혁보다는 구조의 회정을 약화하여 이익을 누려온 자들에 대한 정적적 의도로 처벌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무엇을 위한 개혁이라는 본질적인 불응과 연관된 것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구조적인 개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김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개혁은 개인의 명성을 위한 것이거나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어떤 의도를 위한 것이라는 심판을 받기 쉬울 것이다. 가끔 사회의 비리를 적발하고 처벌하여 사회에 어떤 긴장을 불러일으키려는 작위적 노력을 우리는 지금

지성과 윤리의식의 가치회복을 위해

법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래서 무력이 법 위에 군림할 때, 이성은 제대로 대립받을 수 없다. 무력이 개인의 욕망을 위해 동원되면서 법 위에서 칼춤을 출 때, 가치의 기준은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이 되어 버린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부조리들은 개인 욕망을 위한 오랜 동인의 총칼 지배의 필연적 귀결이다.

총칼 지배는 우리의 자존심과 정신력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시민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바로 민족적 또는 국가적 자존심이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존심과 정신력의 훼손은 자연히 건전한 문화의 자생력과 생동력을 위축시켰다. 그러므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은 지성의 기능과 윤리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것이다. 문화의 생동력을 재창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정신적 가치들은 한 국가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개혁은 궁극적으로 이 가치들의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행위를 방해받음이 없



김영삼정권의 개혁을 우리사회의 구조적 부정부패를 혁명해야만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각종 악법 개폐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지금 집권당 개혁의 한계이다.

성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근대 민주주의의 이상은 따지고 보면 이런 사회적 지성화 또는 이성화라고 볼 수 있다. 그

봄을 맞는 해직교사의 단상

해직된지 3년 9개월이 되었다. 해직 / ... 나처럼 평범하고 고지식한 일개 교사에게 있을 수 없는,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사들에게나 따지는 일인종도만 일었던 ... 해직 / 벌써 아득한 옛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제 일 같기도 한데 4년이 되어가는 것이다. 같이 있었을때 잘 몰랐던 학생들, 선생님들, 교단에 대한 그리움이, 사람이 떠나 있음으로 더욱더 깊어졌다.

해직되어서 1년여 동안은 가끔씩 학교에 출근하고, 학생들과 수업도 하고 장난도 치는 꿈도 꾸곤 했었던건데 이제는 그런 감정도 배마른 것인지 꿈도 잘 안 꾸네. 해직된 후의 모진 생활고와 슬픈 투쟁, 험한 세월이 지친 때문일까? 그런데도 어쩌다 코메디프 로 볼수가 학당이라도 보게되면 눈시울이 붉어지며 밀려오는 사무진 감정을 주체할 길이 없어지는 것은 또 무엇인가?

복직만 되면 정말 옛날에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무지하여 못하는 한 학교교육을 신명나게 혼신의 힘으로 실천해 보련만...

정권의 개혁은 자신들의 살 길이기도 하고, 시대의 필연이기도 하고, 그간의 민주투쟁의 성과이기도 하다. 개혁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리고 김영삼정권의 개혁은 환황환한 부분이 실로 많이 있다. 지난 군부정권 30년에 한번도 누구도 실천 못했던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더욱더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엄청난 사정과 개혁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또한 이즈음의 개혁조치들을 보며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게된다. 이 개혁이 혹시나 전두환, 노태우 앞에 죽었던 사람들을 김영삼대통령앞에 다시 쫓아오도록 해쳐 모여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또 사람만 쫓 바꾸고 약간의 돈만 환수하면 개혁이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해직교사의 복직만 되면 교육개혁이 다 된다 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교육관료 몇 사람이 바뀌고 해직교사 복직만 되면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해직교사의 복직은 실로 개혁의 시작일뿐이다.

복직만 되면 신명나게 참교육을 해보련만...

어떤 이들은 벌써 복직이 다 된 줄로 안다. '어느 학교로 복직되었나?'라는 인사말까지 들려 듣는다. 그러나 지금 1993년 5월 3일 현재 전교조, 전수위, 강경대군, 치사관련, 시국선언, 시국행진,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해직된 1천8백여 해직교사들 중 단 한 명도 복직된 일이 없다. 신문에 방송에 교섭이 있었을 뿐이다. 복직이 시작 된 것이 아니라 복직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뿐이다.

우리가 처음 해직되고 1년쯤 지난 90년 봄 어느 술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했었다. '일 거리에 나가 정몽을 차고 앉아서 구걸을 하더라도 각서를 쓰고 전교조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런 류 우리는 신념에 차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다. 이전에 따져서라거나, 우리 교사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이 틀어도 지켜야 하는 우리 교육에 고되고 진정한 인간교육을 하는 길은 오직 교사들의 자주적이고 양심적 조직인 전교조와 그를 통한 참교육의 실천이라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세월이 흘러 고프스런 4년여를 보낸 해직교사들은 많이도 병들고, 죽고 시들었다. 그들의 참교육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지만 7명의 해직교사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대다수의 교사들이 병마에 생활고에 시달리며 기약없는 세월을 버티어 왔다. 다행히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개혁은 시작되어 해직교사 복직에 대한 교섭이 있었다. 김영삼

사람만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리워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 구조와, 사교방식, 법과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인 것이다.

사회적, 정치적 여건상 '전교조'란 조직문제 해결은 추후로 미루고 해직교사의 복직에 일단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해직교사들의 입장에서 '복직'이란 말조차도 거두고 싶을 따름이다. 실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일이다. 그러나, 혹시 그 복직이 또다시 따져서, 조건부, 교육 유부 관료들의 선별에 의해 교해직된 동지들이 갈갈이 찢겨가는 그런 복직이라면... 어쩔 것인가? 우리는 또다시 고민 할 것이다. 김영삼 정권의 개혁이란 과연 무엇인가?

결국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려온 '복직'앞에서 회의하고 고프스런 려워하고 그후로는 골육적인 조건을 내기는 개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개혁과 마주하여 또다시 싸우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아직도 전교조가 옳은 방법이었는지 지금도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 다. 그러나 복직이 많을 것만 같고 하면서 복직에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그 복직에 온갖 조건과 조건을 붙이려는 사이 비개혁과 마주쳐 있다. 온갖 말들은 무성하지만 해직교사들의 봄은 조금도 오지 않았다!

박승호 <선린학교 해직교사>

근본적인 부정부패 해결위한 노력없이 개혁 성공은 사회단체 참여·감시통해 가능

피를 입고 출발한 이래 법이 개인의 욕망에 의해 유린되는 것을 자주 경험하였다. 개인의 욕망이 법에 종속되지 않고 거꾸로 법이 개인의 욕망에 종속되는 것은 바로 근대 민주 사회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사회의 기본적 틀이 유지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법이 유린될 때 이성과도 함께 유린된다. 이성의 자유로운 활동은 법이 제 기능을 할 때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줄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사회의 기본적 틀이 유지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법이 유린될 때 이성과도 함께 유린된다. 이성의 자유로운 활동은 법이 제 기능을 할 때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줄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사회의 기본적 틀이 유지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법이 유린될 때 이성과도 함께 유린된다. 이성의 자유로운 활동은 법이 제 기능을 할 때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줄

동의로

“영남지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던 기숙사에 물이 나오지 않아 제대로 씻지 못하던 누가 믿겠습니까?” 금강학사 한 사생의 불만 섞인 목소리다.

금수시간이 되면 세명정도에 구름같이 모여든 사생들은 줄을 서 자신이 씻을 차례를 기다리며 지난 4월 중순부터 제한 금수로 인한 불편을 토로한다.

세명은 교사하고 수세식 화장실에 물이 나오지 않아 여기서 쫓겨가는 악몽도 세명정도에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다행히 화장실의 물은 정상을 되찾아 사용에 불편을 덜었지만 언제 또 금수가 중단될지 몰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기숙사측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제한

제한 금수가 웬말



수 개발을 검토중인 기숙사측의 입장에 대해 사생들은 한편같이 기숙사생이 입사하기 전 불편한 상황을 검토해 주리, 보수를 끝냈

하기를 원하며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이 올바른 행위가 일반적인 것으로 성립하도록 일정한 제도의 마련을 원한다. 이런 현상은 특히 사회적인 문명에서 쉽게 확인된다. 예컨대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장되기를 원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지성은 자신의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지성적 사회가 되기를 요구한다. 지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사회의 기본적 틀이 유지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법이 유린될 때 이성과도 함께 유린된다. 이성의 자유로운 활동은 법이 제 기능을 할 때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줄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사회의 기본적 틀이 유지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법이 유린될 때 이성과도 함께 유린된다. 이성의 자유로운 활동은 법이 제 기능을 할 때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줄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사회의 기본적 틀이 유지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법이 유린될 때 이성과도 함께 유린된다. 이성의 자유로운 활동은 법이 제 기능을 할 때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줄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사회의 기본적 틀이 유지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법이 유린될 때 이성과도 함께 유린된다. 이성의 자유로운 활동은 법이 제 기능을 할 때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줄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사회의 기본적 틀이 유지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법이 유린될 때 이성과도 함께 유린된다. 이성의 자유로운 활동은 법이 제 기능을 할 때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줄

세계경영 우리기술-대우

우리가 힘을 모아 저 넓은 세상으로 거침없이 나가면 세계와 미래의 새로운 주인 될 수 있다는 큰 가치관이 있는 만주별만... 지금은 남의 땅이 되어버린 그곳에는 일천오백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우뚝 서서 한민족이 땅의 주인이었음을 일깨워 주는 우리 선조들의 커다란 목소리가 있습니다.

면 옛날 금할 줄 모르는 힘찬 기상으로, 광활한 대륙을 향해 내딛었던 고무려인들의 굳센 발걸음들... 그것은 바로 창립 이래 지난 4만세기동안 미지의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의 발걸음과 어느 기업보다 앞선 해외시장

지난날 세계로 치달았던 한민족의 기백을 오늘, 대우가 '세계경영'으로 이어갑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저 넓은 세상으로 거침없이 나가면 세계와 미래의 새로운 주인 될 수 있다는 큰 가치관이 있는 만주별만... 지금은 남의 땅이 되어버린 그곳에는 일천오백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우뚝 서서 한민족이 땅의 주인이었음을 일깨워 주는 우리 선조들의 커다란 목소리가 있습니다.

면 옛날 금할 줄 모르는 힘찬 기상으로, 광활한 대륙을 향해 내딛었던 고무려인들의 굳센 발걸음들... 그것은 바로 창립 이래 지난 4만세기동안 미지의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의 발걸음과 어느 기업보다 앞선 해외시장

한민족 '세계경영'의 시대를 연다

개적으로 우리경제의 세계화를 주도해온 대우의 정신적 좌표입니다. 이제 대우는, 세계로 치달았던 선조들의 기백을 이어, 한국의 자존(自尊)을 지구촌 곳곳에 심었던 해외시장 개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기술로 해외현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경영의 脫(脫)국경화 전략 '세계경영'으로 다시 한번 우리경제의 중흥을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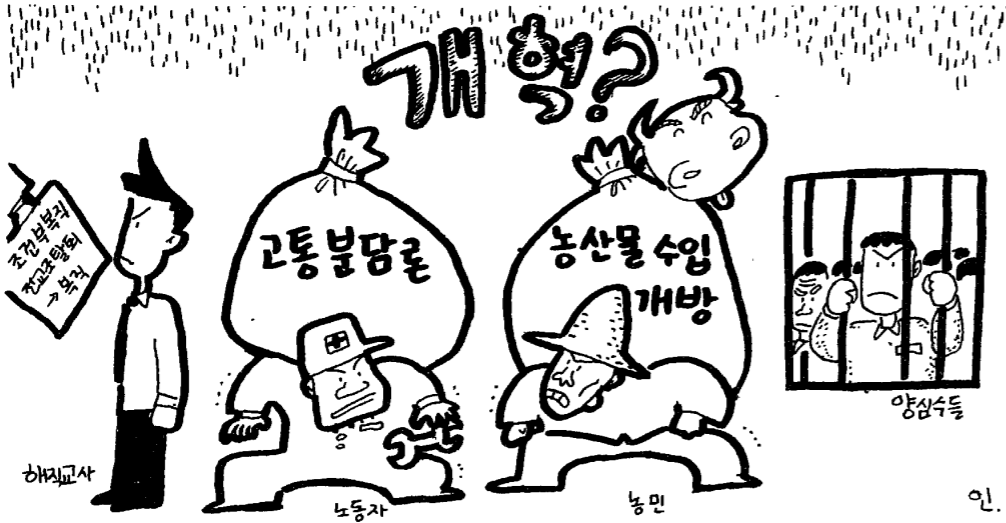
'해외시장개척'을 넘어 '해외현지경영'으로 - 대우가 우리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지역불복화의 급속한 진전,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등으로 해외사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오늘날 -



개혁의 소외속에 봄을 맞는 사람들

특집



# 정권본질 깨닫게 한 복지투쟁

## 해고 노동자들의 가슴앓이

언제인가 우리를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던 분노의 감정이 하나, 둘씩 피살아 나간다.

이땅의 자유, 민주, 민중해방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독재정권과 독점자본의 억압과 착취의 사슬을 끊어내는 데 결연한 의지로 투쟁해 나갔던 숭한 민주 열사, 광주 민중들의 부름은 두눈이 5년의 햇살 속에서 새롭게 되살아 난다.

그중에서도 민주노조 사수와 군부독재 타도의 피흘림을 남기고 우리 곁을 먼저 떠난 청년공당 세일(구, 통일)노조 대위원 이영일 열사, 옥중에서도 집요하게 협박해 들어오는 안기부의 전노협 탈퇴 요구를 거부하다 억울하게 살해당한 부산 한진중공업의 박창수 열사, 그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민주노조를 직접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동지들의 모습이 우리의 두손을 움켜쥐게 한다.

생각해 보라! 노동자가 산업역군으로 포장되었을 때 우리들의 피와 땀은 자본가들을 살찌우게 하기 위한 전방 기계를 전락시키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저들의 기계가 이념을, 우리가 똑같은 인간임을 선언하고 전격에서 민주노조 건설의 열염이 거세지고 투쟁의 열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자 자본과 권력은 겁에 질려 우리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비이념을 펼치 않았던가.

타니아가 노동자 계급이 노동해방, 평등사회 건설을 외쳤을 때 가진자들은 노동자들을 좌경폭력 세력으로 매도하고 결국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가.

그동안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의 과정을 되새기며 때때로 지배계급은 우리 노동자들의 꿈과 희망인 민주노조의 전노협을 이명에서 영연히 없애버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탄압해 왔다. 저들은 노동자들을 이간시키기 위해 구사해, 노노분쟁을 배후 조종했으며, 어떠한 아비한 '수단에도 결코 민주노조를 없애지 않겠다'고 판단하자 결국에는 수많은 노동 형제들을 해고, 구속시켰던 것이다.

정권의 이해기반이 바로 이러한 전 대과인 우리에게 속시원한 개혁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기울여야 할 노력은 김영삼의 불철저하고 기만적인

### ◇진정한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



개혁을 확실한 민중의 요구와 이해에 기반한 개혁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노동자 계급과 학생들이 앞장 서는 데 있다. 우리 전체 민중의 투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해고자 복지'가 실질적으로 생략되는 것은 우리 투쟁의 역사가 증명하듯 바로 우리들의 '주체적인 열망'과 '투쟁'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결코 자본과 정권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도 산식 투쟁을 20여일간 전개한 바 있다.

물론 우리 마당지역에서도 똑같은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노동부, 국회 청원, 서명운동 실시 등 노동부 장관의 발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배방으로 뛰어 다녔지만 결국 영상 정권의 본질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현 정권의 해고자 복지 발표와 함께 노동정책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배계급의 이해기반은 우리 노동자를 비롯한 농민, 도시빈민 등 근로민중들이 아니라, 바로 배가 터지도록 잘 먹고 잘사는 독점자본과 고관료라는 것이다. 현

# 지금 농촌을 떠나라는 소리인가

## 지쳐있는 농민들을 생각하며

어김없이 세월은 가고 오는 것. 가나간 동편의 잠을 깨고 다시 땅을 일구는 농부의 손은 한해가 더할수록 무겁게 다가간다.

땅을 지키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지 몇 천년. 이제 그 자부심만으로 노동의 대가를 치부하기에 농민은 너무나 지쳐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밑듯이 밀려오는 저질의 외국 농산물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한국 농민이 벼랑끝에서 있다는 위기의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된 것인가.

70년대 기간 산업인 농업은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희생당 강요받아 왔다. 저임금 노동과 대량의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한국의 공업화는 농산물가격을 낮추어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완화하고 농민의 이윤을

축진하여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의도로 추진되었다.

결국 이러한 농업과 공업의 불균형은 농산물 시장의 전면개방을 통해 내외국 농민의 이익을 축적하는데 기여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 농업해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값싼 수입농산물에 밀려 우리 농산물은 설 곳을 잃었다. 추신인 쌀 수입개방 압력으로 더욱 고통스러운 농민이다. 그 고통과 함께 4천만 국민 역시 편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입농산물에 다량으로 집중되는 유독성 농약으로 4천만 국민의 건강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해마다 쥐는 농산물 가격으로 애써 지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집어넣는 억울무너지는 소리가 언제쯤이면 그칠 것인가.

결론은 간단하다. 농촌을 떠나라. 그러면 될 게 아닌가.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 민인으로 전락하는 것이 더 수월한 일일테니 무슨 미련이 있어 아등바등 살려고 한단 말인가. 땅도 좁은 나라에 가뜰이나 주

중살아남은 자는 30년, 40년 한도 끝도 없는 세월을 견뎌왔다. 누가 인간적인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던 말인가. 빙하시대의 빙벽처럼 얼룩한 정치범의 감옥. 그 감옥에 봄은 언제나 올까.

요즘 정국살기는 어떤가. 진보다 더 어려워졌을 것 같네. 정치범의 근거는 바로 대적전선이 명확하게 그려질때 민주화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될 때가 아니겠나. 일방적으로 양심수의 존재는 한 사회의 민주화의 정도를 가늠하는 잣대라고 말하는데. 또한 양심수의 존재는 우리가 민주화의 도장에서 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

결코 양심수는 시혜나 은전으로 사면되는 것이 아니라 역대 독재정권이 저지른 과오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해.

## 양심수는 시혜가 아닌 역대 독재정권의 과오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해결돼야

며칠전 청와대 개방 이후 처음으로 민가협 회원들은 청와대를 방문했다. 화창한 날씨 만발한 꽃과 관공재 무리속에 파묻혀 잠시 우리가 방문한 목적이 잊어버릴 뻔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갑자기 나타난 사복형사들에 의해 청와대 우리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한채 우리 회원들은 강제 연행되었다. '왜 이러느냐. 우리는 청와대에 민원이 있어 왔다. 민원실에 가려는 사람들 이렇 게 폭행해도 되느냐.' 50, 60대 회원들은 이 어이없는 처사에 분노해 단장 앞에서 양심수 석방을 절규하였다. 시위로 내버려진 회원들은 이대로 풀려설 수 없다면 다시 모여 청와대로 집결했지.

청와대 민원실이라고 찾아간 곳은 건물복에서부터 접근을 차단당하였고 청와대 관계자의 '민원인 사를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는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또 다시 단장에게 처박혀졌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에게 상소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었

대우는 이제, 해외거민의 개발, 미수교국 입성, 수출시장 확대 등 1967년 창업 이후 추구해온 시장개척 차원의 기업활동을 한 단계 끌어올려, 국내 기업총 자산 65개국 86개 지사망과 27개국 48개 현지법인으로 중심축으로 세계 주요 지역에서 전략사업의 현지화를 추구하는 '세계경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우는 약화된 오늘날의 국내외 경영환경을 어느 기업보다도 효율적으로 극복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두터운 세계경쟁력을 해치고 나아가 우리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전자통신의 경우 이미, 미국,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 반도체 및 전자렌지, VCR, 컬러 TV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선진경제권에서 생산기지를 확보한 상태이며, 가격경쟁력 강화와 시장확대 차원에서 중국 및 베트남, 미얀마 등의 아시아, 동구권국가, 중남미 등지로 생산공장을 이전, 이 지역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는 해외 현지 생산 및 독립경영체제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2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자동차 메이커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군산 종합자동차공장의 첫 삽을 뜬 대우는, 우즈베키스탄에 세워질 18만대 생산규모의 국민차공장을 포함한 중국, 베트남, 이란, 남미 등지에 해외 자동차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세계 공지의 자동차메이커로 우뚝 서게 됩니다.

대우는 이밖에도, 난공불락의 시장으로 여겨졌던 일본 전선시장을 해치고 들어가 대규모 트윈일링인 '아시아 전보교역센터'를 건설중이며, 리비아 대수로공사 이후 최대의 해외건설공사인 총공사비 10억불 규모의 파키스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등 대우는 해외건설부문에서 오늘날 또 다른 신화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한편, 벤지움의 CMB사를 인수하여 '90년에 유로대우사로 출범한 대우중공업은 이미 우리의 기술로 유럽 현지에서 각종 중장비를 생산, 전세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유럽의 기업으로 - 아시아에선 아시아의 기업으로 - 이제 대우는, 앞으로는 脫 歐경험과 기업경쟁력인 「세계경영」이래, 까다로운 규제장벽을 극복하는 전략사업의 현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해외 현지판매의 확대를 통한 국외경쟁에 앞장섬으로써 잠재된 우리경제의 활로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세계를 뚫는다!**

기술을 가진 나라만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기술을 가진 기업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오늘날 - 대우는 오래 전부터 '우리의 기술로 세계를 경영한다' 는 기치 아래 탄탄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주체적인' 국내 최초로 産, 學, 研 공동으로 정보통신, 자동차, 전력에너지, 생산기술 등 4대 핵심기술을 연구하게 될 고등기술연구원, '81년 이후 500여명에 이르는 기술인력의 해외연수, 기초과학 집중투자 및 육성, 노벨상의 꿈을 실현한 대우 기술상, 발명왕상 제정, 대우 기술위원회 발족 등이 기술대우의 자립기반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입니다. 특히 중5천여원을 들여 용인에 건립하는 고등기술연구원, 일본 SRP (Soft Research Park) 내의 대우연구센터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대학의 기술협력 및 R&D센터, 생산현장의 상품기술부문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완벽한 기술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세계1등 상품을 탄생시키는 우리기술의 메카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제 대우는, 기술자립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며, 절대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한 독자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함으로써 세계의 기술경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아가 우리기술로 선진 기술경쟁을 넘어 세계무대에 우뚝 서는 「세계경영」의 대역사를 펼쳐가겠습니다.

**세계의 자본시장을 뚫는다!**

첫세대 규제가 심하기로 소문난 세계 금융시장의 메카, 유럽과 미국 - 대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금융부문의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제 자본시장의 자유화에 대비한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왔고 동시에 우리자본의 세계화를 추구해왔습니다.

'91년 대우는 단독으로 런던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래 지난해에는 금융시장의 본산인 뉴욕에도 현지법인을 개설

함으로써 선진 자본시장의 핵심지역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90년 헝가리와 합작설립한 MHB-DAEWOO BANK는 해외금융투자의 성공적으로 풀고 있으며, 이예를 모아 올해 2월에는 Magyer Daewoo Securities를 설립하는 등 대우는 우리자본의 국제화를 어느 기업보다 앞서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자유화에 대비한 해외투자의 확대로부터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세계 현지 금융시장의 공략에 이르기까지 - 대우는 앞으로, 거대한 국제 자본시장을 현지에서 직접 뚫어가는 공격적인 「세계경영」 전략으로 우리자본의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해외의 자원을 우리의 에너지 자원으로!**

대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의 실정을 감안, 세계 각국과 천연자원을 함축개발하는 형태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자원공급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마두라유전, 미얀마의 해상가스전, 캐나다 우라늄 광산 개발을 비롯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아쿠즈 - 사하 공화국의 가스전 개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아쿠즈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해를 통과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수송될 예정인데, 얼마전 대우는 이 파이프라인의 북한통과 합의를 계기로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사업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우는, 현지개발을 통한 해외자원의 적극적인 국내유치를 추진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수입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섬고, 나아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바탕으로 「세계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가자, 21세기 한민족 「세계경영」의 시대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라는 공경적 명제 이래 끊임없는 개혁의 발걸음 창조한 「대우精神」로부터 한민족 국제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 「세계경영」에 이르기까지 - 전세계 곳곳에서 땀으로 일궈낸 개혁의 화신이 되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부창출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는 대우의 해외대상장은 중단없는 한민족 도전의 발자취로 친연히 빛날 것입니다.

이제 대우는, 이 땅에 한 일의 미만이 되겠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창업 이래 줄곧 그랬던 것처럼 어떤 험난한 역경도 결코 굴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창조적 도전정신으로 다시 한번 우리경제의 세계화를 주도해 가겠습니다.

나아가, 세계속에 대우의 역사(役事)는 끊임없이 계속되며, 미래를 향한 대우의 역사(歷史)는 항상 시작이라는 진취적 행동철학으로 위대한 한민족 「세계경영」의 시대를 이 땅에 펼쳐가겠습니다.

# 대우가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동상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고, 국부창출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는 대우의 해외대상장은 중단없는 한민족 도전의 발자취로 친연히 빛날 것입니다.

이제 대우는, 이 땅에 한 일의 미만이 되겠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창업 이래 줄곧 그랬던 것처럼 어떤 험난한 역경도 결코 굴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창조적 도전정신으로 다시 한번 우리경제의 세계화를 주도해 가겠습니다.

나아가, 세계속에 대우의 역사(役事)는 끊임없이 계속되며, 미래를 향한 대우의 역사(歷史)는 항상 시작이라는 진취적 행동철학으로 위대한 한민족 「세계경영」의 시대를 이 땅에 펼쳐가겠습니다.

# 개교 87주년 기념식에 즈음하여

## 이사장지사



오늘은 동국대학교가 개교된지 87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영광스런 날입니다.

본인은 이 뜻 깊은 날을 기념하면서 먼저 우리 동국대학교의 씨앗을 뿌려준 한국불교계 선지자들의 해안과 승고한 구국정신을 다시 한번 높이 기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온갖 곤란과 화성을 지르면서도 강인한 인내와 의지로 오늘이 있게 한 종단과 이사진, 역대 총장, 교직원, 그리고 동문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동국대학교가 개교된 1906년은 세계의 열강들이 서로 세력다툼을 벌이며 기회를 필비로 다투어 한반도를 침투하기 시작

했던 때였습니다.

당시 민족의 비운과 더불어 한국 불교도 큰 시련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되었지만 나라를 구하는 길은 교육밖에 없었다는 민족적 자각을 일깨우는데 한국불교가 앞장섰던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교육을 남의 힘,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민족적 자존심을 지켰던것도 불교계였습니다.

이때문에 본교는 개교 이래 명국의 일제하에서 세련이나 폐교를 당하고 해방후의 격동기와 4·19.

부르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시 재편이 우리의 역할을 새롭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오늘을 계기로 다시금 동국대학교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할 확실한 위상을 세워나 가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과거의 전통과 역사에만 안주하는 지면에 빠져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발전의 과정은 언제나 개혁의 의지를 요구합니다.

대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지도자의 역량 못지 않게 구

육환경을 개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내일의 희망찬 역사를 건설하는데 있어 종단, 재단, 학교, 동문등 모든 동국가족들의 화합과 단결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진애하는 동국가족 여러분! 동국발전은 곧 개인의 발전이며, 종단의 발전이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새롭게 펼쳐지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 보다 창조적인 의지와 결연한 자세를 보일시다.

또 끝없는 헌신을 보일시다.

## 전통과 역사에 안주하는 지만 극복필요 구성원 자기개혁이 대학발전의 원동력

5·16, 10·26으로 이어지는 파란만장한 현대사를 거쳤습니다. 단은 오히려 굳건하게 민족과 교리를 함께 하는 대학으로 역할과 사명을 대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 한세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을 볼 때 본질적으로 개교당시와 큰 차이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갈등과 모순극복을 위한 개혁이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안정과 조국통일이 우리를

성인 한사람, 한사람의 발전지향적인 자기개혁이 중요합니다.

교수는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무제한 수용하고 연구활동을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 대학의 근간요소인 학생은 묵묵히 정진하는 진지한 자세로 진리 탐구에 임하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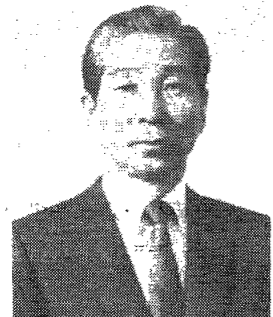
이에 재단은 개교87주년을 맞이 하여 여러분들이 보다 학문과 연구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반 교

그러하여 동국의 내일은 바로 우리들 손에 달려 있음을 재확인하고 각자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 줄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오늘 대학발전의 길을 걸어 가기근속 표창을 받으시는 교직원선생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며 부처님의 자비영광이 모든 동국가족에게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사장 오복원 합장

## 총장식사



동국학원 오복원 이사장 콘스님을 비롯한 이사진, 대덕스님들 그리고 동창회 임원님 및 내외귀빈을 모시고 개교 87주년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경하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10년, 20년, 30년 간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과 항상 학교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대학교는 외세가 이 나라를 침략하던 시기에 불교이념에 바탕을 두고 구국인재(救國人材) 양성을 목표로 세운 이래 87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는 불국정토를 이룩하고 국가사회와 인류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대학

출신 인사들이 각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어 세인의 큰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도 절적으로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상황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보다 더 나은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단지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축하와 더불어 자성과 각오의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남은 걸음을 깨고 새로 태어나는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현실을

구성되는 우리대학 최대이자 최고의 건물이 될 것입니다.

동국인의 희망과 보람이 될 동국 학술문화관의 건립은 전 동국인의 정성어린 모금참여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일백백만 이상 기부자에 대한 건립기금, 3원불상조성, 학교계권 매입 등으로 동국인의 애교성과 단합된 모습이 발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학교는 몇사람의 힘으로 발전되지 않습니다.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의해서 '새동국'

지위를 확보하는 약진동국을 건설 하려고 합니다.

새로 발족된 90주년기념사업본부와 90주년기념사업위원회에서 구체적 각인 당면 사업들을 제시하고 추진 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애교심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를 바랍니다.

대학구내 곳곳에서는 학문연구의 열기가 가득하고 소란대신에 명망한 면학분위기가 충만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새동국'건설을 이룩 해야 합니다.

## 미래지향적인 참동국인 되자

### 90주년기념사업 활성화로 약진동국 건설

미래로 지향하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창조적 동국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는 21세기에 대비하는 교육발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국제수준의 교육을 지향하면서 행정전산화 등 개혁을 확대 추진할 것입니다. 90주년을 맞아 5천4백평 규모의 동국학술문화관의 건립, 양·한방병원의 건립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술문화관은 대·소회의장, 중극장, 세미나실, 전시관등을 갖춘 문화동, 학술동, 연구동으로

의 꿈은 이룩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기고 사랑하며 기쁘게 갈 때 우리동국의 전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국학술문화관 건립을 위한 모금사업에 동국인이 참여하는 것은 우리들의 권리가며 책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실현실기자재와 도서화중, 우수교수의 증진, 교육시설의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그것을 위한 학내외로부터 지원 확보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 민족의 명문사학으로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합니다. 동국인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약진동국 건설의 대열에 앞장 서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장기근속한 분과 표창 받은 분들께 재삼 축하와 감사를 드리고 영원한 마음의 고향 동국의 발전과 동국 가족의 행운이 부처님 가호 아래 성취되기를 두손 모아 빕니다.

총 장 민병천 합장

## 민족동국 87주년에 바란다.

### 총동창회

## 재단·학교·총동 삼위일체 이뤄야 각분야 주인정신이 새동국앞당겨

오늘은 10만 동국인 모두의 영원한 고향이자 교육구국의 승고한 이념으로 성장 발전해 온 모교가 개교 87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여든 일곱년의 성장상을 쌓아오던 동안 자비와 지혜의 건학정신을 구현해서 명실상부한 민족의 명문 사학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 수 많은 영재를 배출하여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동국대학교가 개교87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재단과 학교, 총동창회가 삼위일체로 굳게 결속하여 동국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동국대학교는 경제와 관계, 세계등에서 졸업동문들의 두드러진 활약으로 그 명예가 한껏 높아져 있습니다.

또한 모교에서도 외부교수 수석 합격등의 쾌거와 함께 개교 90주년 기념사업회의 발족으로 실속있는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단순한 개교기념일이 아니라 보다 찬연한 동국의 내일을 다짐하고 결속해야 하는 자리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1백주년의 기념식장에서 나는 동국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하는 불음에 부끄럼이 없이 자랑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였습니다.

다기를 21세기에는 동국대학교가 역사와 민족의 주체로 세계속의 동국인이 되기 위해 재단과 학교당국 총동창회등 구성주체의 차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국인 각자는 성숙한 민주 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책무와 본분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만이 소기의 성과가 있을것으로 확신합니다.

재단이 먼저, 학교가 먼저, 혹은 동창회가 먼저가 아니라 나나없이 모두가 자기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최선의 길을 걸을때 우리 동국은 분명 새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재학생들은 스스로 실력있는 학생들로 내일을 기쁨과 함께 학생역시 학교발전의 주체임을 명심하여 보다 폭넓은 사고와 이해력을 키워야 하며 학교 당국은 당국대로 이러한 제반 요건을 뒷받침 할수 있는 행정력과 실천이 뒤따라야 하겠습

니다.

또한 재단은 이에 따르는 재원 확충과 1세기를 내다보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 10만 동문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총동창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는 미래의 지양분일 뿐이지 결코 현재일 수는 없습니다.

동국의 빛나는 역사를 각인하고 저마다 동국발전의 주체임을 명심하여 1백주년의 동국을 세계속의 명문사학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해야 하였습니다.

총동창회는 언제나 동국발전의 대명제 아래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다. 물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며 개교 1백주년에는 더욱 힘어하는 주체적 모습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끝으로 개교 여든 일곱들을 10만 동문과 함께 지속하며 학교 관계자들과 재학생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유 주 형 <총동창회 부회장>

### 민주동문회

## 지혜모아 21세기 이끄는 대학되길 구성원간 갈등극복은 발전의 지름길

바야흐로 새시대를 맞이하는 국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다져가는 데에는 상이함의 역할이 요구되며 그 역할의 선두에는 언제나 동국의 발자국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동국인의 자부심이자 긍지이다. 새로운 시대와 역사를 창조하는데 앞장서 온 동국의 정열과 고뇌는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동국인에게 희망과 역동을 불어넣어준다.

앞을 향한 유신시대와 5공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현실에 굴복하는 안연과 안락 보다는 험한 기시발 길을 선택했던 동국인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리하여 21세기를 향한 동국의 발전에도 역시 지난 시절의 고난과 역경을 헤쳐왔듯이 동국을 구성하는 제주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화합하고 노력한다면 20세기를 이끌었던 선배들의 명성을 이어 21세기에 한국역사를 선도하는 빛나는 대학이 될 것이다.

지난 시절 후식 있었음에도 도를 우리 내부의 혼돈과 반목, 질서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화합과 개혁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동안 각각의 주체들이 모여주었던 조그마한 갈등들을 깨끗이 치

유하고 모두 함께 고민하고 건설하는 성숙된 자세로 동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에 나나없이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이다.

미래를 개척하는 일에 가장 힘을 쏟아야 할 주체는 재단과 학교당국, 동문, 학생등 모든 동국인이다. 무엇보다도 재단은 동국의 모태이자 생명의 주체이다. 동국재단은 비록 사학재단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동국인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끌어모아 쇠신과 전진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21세기에는 명실상부한 세계속의 대학으로 자리매김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당국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당국은 소신있는 행정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학내외에 인정받는 선진적인 대학으로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또한 실력있고 자질있는 교수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학교발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모든 면에서 거듭 태어나는 모습으로 학교를 운영해 나갈 때 화합의 주체로 설 수 있겠다. 학교당국이 화합의 주체로 서고자 하는 노력이 가시화될 때, 학생들도 기꺼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누구나 이상에 대한 열정으로 살고자한 학창시절의 의지를 현재적 인생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의지를 불러 일으키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비전있는 자세로 행동하자.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발전의 노력과 상이함의 절음을 발산하는 열정적인 자세로 생활해 나가자. 타대학보다 처져있는 대학교라는 자력 지시 보다는 어느 대학 못지않게 민족과 나라를 이끌었다는 자부심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21세기를 선동하는 일류대학을 만들어 나가자.

요즘 세상을 살피면 알 수 있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어느 한분야도 뛰어난 인재를 양성해 내지 못하는 대학이 없는 현실을 이 어가는 후배들이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학창시절 어떤 교수의 강의중 "고뇌하지 않는 청춘은 가치가 없다"라는 가르침을 새삼 되 새겨보며 우리의 철학, 우리의 역사, 우리의 발전나라의 발전과 동국의 발전-을 위해 고뇌하는 청춘이 되자.

여 익 구 <민주동문회 부회장>

SAM YANG GROUP

깨끗한 환경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 산은 세상에서 가장 큰 캠퍼스입니다!

책상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지만  
젊음이란 그곳을 다 채우기엔  
책만으로 오히려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없이 높고 큼으로 겸손의 미덕을  
알려주고, 겸손함과 불굴의 위용으로  
강인한 호연지기를 길러주는  
이명의 산은  
내일을 향해 뛰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훌륭한 스승입니다.

산과 같은 진취적인 기상으로 내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  
심장은 이런 젊은이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건설사 산양(株) ●건설, 시공, (화) ●환경(주) ●산양(주)주식회사 ●인도도도주식회사 ●산양(주)주식회사 ●산양(주)주식회사 ●산양(주)주식회사  
●건축(주)주식회사 ●주식회사 산양(주)주식회사 ●대한산양(주)주식회사 ●산양(주)주식회사 ●산양(주)주식회사 ●산양(주)주식회사 ●산양(주)주식회사

# 기획대담 : 통일이후의 독일경제와 경영학자의 사명

## “... 그러나, 통일의 앞날은 밝다”

### 잠재력 - 경제개발작업 등 호황 가능성 기대

- ... 이글은 지난 4월 1일부터 22일까지 독일 함 ... ○
- ... 부르크 대학교 산업경영 및 조직연구소의 초 ... ○
- ... 청을 받고 상기 대학교를 방문한 본교 경상대 ... ○
- ... 학 경영학과 교수인 이순룡 교수와 동연구소 총괄 ... ○
- ... 소장인 H. Jacob 교수와 통일이후 나타난 문 ... ○
- ... 제점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전망에 대해 나눈 ... ○
- ... 대담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
- ... (편집자) ... ○

**이순룡 교수** : 먼저 귀중한 후원 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뜻 있는 대회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 교수** : 만일 마다 아니하시고 저희 초대에 응해 주셔서 영광이오며, 귀하의 독일방문이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긴밀한 학문적 교류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밀도있게 이루어 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교수**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귀교 및 귀 연구소와의 공동관심사에 따른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진척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름 교수** : 구 동독사회의 불안정한 변화는 한편으로 많은 동독인들이 인접 국가를 통해서 서쪽으로 망명하게 하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코메콘(COMECON : 동구공산권 경제상호원조 협의회) 시장구조를 와해시켜 가뜰이나 어려운 동독 경제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 :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생산된 제품은 이에 따라 서방 자유세계 시장에 내놓아야 했으나 노후되거나 뒤떨어진 설비 및 낮은 노동 생산성 등의 요인에 따라 거의 경쟁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를 회피해 가는 방법으로는 국경의 담을 더욱 높이 쌓거나 아니면 국경의 담을 허무는 것이었지요.

적 및 문화적인 여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일당시의 동서독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초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정식으로 인적교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편지 왕래나 전화통화나 전혀 불가능한 형편이며, 과거 독일에서와 같은 라디오나 TV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문화교류조차도 봉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일당시 서독 상황은 어느 정도였는지요?

**아름 교수** : 이미 알려진 것처럼 초창기에는 편지왕래(물론 검열)가 주류를 이루다가 차츰 소포를 보낼 수 있었고 전화 통화가 가능해지는

독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자기 고향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간접지원을 하자는 의도였지요.

**이 교수** : 앞서 통일당시 구 동독의 경제 수준이 동구권 국가에서는 최상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름 교수** : 당시 동독에서 발표된 경제수치에 의하면 동독의 경제수준은 오스트리아와 거의 엇비슷한 단면을 엮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제한된 교류 및 자료의 검증 불가로 매우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결국 통일이 된 후 많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속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본인의 세미나 강좌에 초대되었던 유영 전자회사(세계적인 기업)사장의 발표 내용을 보면 그 한 단면을 쉽게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1,900년도에 그 회사 사장은 동독의 어느 전자회사를 인수할 기회가 주어질 직접 전자회사를 방문했는데, 설비수준은 매우 열악하여 새로운 투자를 기다려야 할 형편이었으며 노동 생산성은 서독 수준에 비추어 3분의1도 못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 : 아직도 세계경제 상태가 비관적인 상황은 아닙니까. 특히 통일 이후 독일 경제도 심한 몰락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아름 교수** : 통일 이후 독일 경제는 일정 기간 통일이기는 했어도 얼마간은 호황기였습니다. 통일이 되기 전 동·서독의 화폐가치는 비정규적인 시장가치로 10대1 정도였는데, 통일이후 개인저축분 중 4,000억 동독 마르크까지 1대1 비율로 그 이외는 2대1 비율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화폐교환에 의해서 그때까지 구 동독에 있던 동독인들의 잠재적 구매력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폭귀 현상까지 나오는 진귀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경기는 매우 나쁜 상황이었지요. 결국 독일 역시 일련성도의 기간에 걸쳐 새로운 수요 요인이 충족되자 세계적인 경기의 호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주요 경쟁 상대에 비해서 높은 세율 및 고도의 임금(부수적 임금비용에 따른) 수준에 시달리고는 있지만, 여



◇통일된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독일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으나, 여러가지 잠재력과 구 동독지역의 경제개발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앞으로 5년후에는 베를린장벽이 무너질 당시 독일국민들의 열망을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확인을 시작했고, 제 연구소에도 상당수의 일반 대학 교수들이 공동 연구 목적으로 제휴하곤 했는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6·70년대만 해도 품질은 일본기업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핸디캡으로 작용했지요. 그 뒤 점진적인 개선 내지 발전단계를 거치며 일본제품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 졌고 급기야 독일제품의 경우 여러 서구 선진국가의 품질수준을 능가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품질 개념의 정의의 여하에 따라서 평가하는 관점이 상이해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례로 다양화된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생산된 어떤 제품이 기존제품의 개선내지 기능 향상 수준에 따른 변화이나 아니면 새로운 이노베이션에 따른 혁신(Fortschrittliche Leistung)이나에 따라 품질 개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국의 경제 수준도 아시아의 4마리 용 가운데 하나로 매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비수준은 미국 정도에 이르렀습니까?

**이 교수** :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가 그런 찬사를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을 넘어면서부터 새로운 의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기만 제도약을 시도하려는 매우 궁극적인 움직임이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동·사 양측간의 공동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국제경쟁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의 체질 개선 내지 기술수준 향상 및 제품품질 확보등을 꾀하려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구 동독지역의 경제가 새로운 기지개를 펼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처럼, 우리 경제도 이와 비슷한 제도와 노력을 하는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새로운 의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기만 제도약을 시도하려는 매우 궁극적인 움직임이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동·사 양측간의 공동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통일이후의 독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해 주시겠습니까?

**아름 교수** : 통일이후 독일 경제는 일정 기간 통일이기는 했어도 얼마간은 호황기였습니다. 통일이 되기 전 동·서독의 화폐가치는 비정규적인 시장가치로 10대1 정도였는데, 통일이후 개인저축분 중 4,000억 동독 마르크까지 1대1 비율로 그 이외는 2대1 비율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화폐교환에 의해서 그때까지 구 동독에 있던 동독인들의 잠재적 구매력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폭귀 현상까지 나오는 진귀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경기는 매우 나쁜 상황이었지요. 결국 독일 역시 일련성도의 기간에 걸쳐 새로운 수요 요인이 충족되자 세계적인 경기의 호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주요 경쟁 상대에 비해서 높은 세율 및 고도의 임금(부수적 임금비용에 따른) 수준에 시달리고는 있지만, 여

우 기업준립 자체까지도 의문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례로 독일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녹색 표시(그린 마크)'란 환경 보호적인 인증사함을 어길 경우 적잖은 소비자들의 의식에 따라 그 제품은 곧장 외면당하고 말게 됩니다.

**이 교수** : 이처럼 변화된 기업(경영) 환경, 특히 통일에 따른 새로운 여건을 감안하고자 할때 기업이 취해야 될 진취적인 입장과 경영자 및 경영학자의 사명에 대한 귀하의 평소 의견을 개진해 주시겠습니까?

**아름 교수** : 주어진 환경여건과 더불어 인간은 기업을 이루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천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꿰뚫어 보지 않고는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당초의 목적을 정상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계획 경제체제하에서는 단지 기술적 및 수량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만 생산하는 것 만으로 기업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교성이나 기본철학이 "기업은 필요한 급부를 생산하는 것만이다" 그 임무가 완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요, 이는 시장경제 체제와는



이순룡 교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난 4월5일 베를린 방문시 구 동독지역을 지날때는 조금전과는 좀 다른 낙후된 모습을 보고 경제체제의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구 서독 경제의 지역과 분배의 형평성이 구 동독 지역과는 상대적으로 대조되어 보이는데, 통일 당시 독일의 정치, 사회 및 경제적 상황은 어떠한지요?

**아름 교수** : 당시 양쪽의 정치 및 사회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게 슈타인은 아닙니다.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소련의 변화(코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등)는 동독 공산주의 시스템 자체의 기반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으며, 구 동독의 라이프제에서 시작된 평화 시위운동과 베를린 장벽의 와해등으로 자유민주 선커가 약화되고 기존의 공산정권(SED정권)이 무너지면서 과도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 변화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당시의 서독 정부에서는 다시 올 수 없는 그 기회를 매우 빠른 속도로, 즉 정치적인 관점에서 활용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이르러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은 따라서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정치적 이해 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당시의 동독 경제는 동구 공산체제에서 가장 우수했다고 하지만 서방 자유세계의 척도도 볼 때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다시말해서 2차 대전후 공산정권이 들어서기 전 이미 갖추어진 경제적 기본틀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꽂힌 뼈대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요.

귀하께서 베를린에 가셨을 때 보셨던 동독지역의 교육들은 그 단편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체 사례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비해 서독 경제는 매우 견고했습니다. 연간 민간 저축액만도 1200억 마르크에 이르러 충분한 국내 자본의 바탕을 마련해 주었으니까요.

**이 교수** : 그러면 통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을 경제, 사회

### 우리의 통일은 상호보완·공동보조 등 단계적 접근으로 동질성 회복부터

현재 구 서독지역의 인구밀도는 평방 킬로미터당 약 2백50명이고 구 동독 지역 경우에는 약 1백50명 정도 됩니다. 한국의 인구 밀도는 어느 정도쯤 되나요?

**이 교수** : 확실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평방 킬로미터당 4백명 정도 될 것입니다.

앞서 통일 전후의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인 단란이 통일을 앞당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미처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름 교수** :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었지만 본인은 중요한 문제점으로 다음의 3가지 경우를 꼽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구 동독지역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관계의 불명확성을 들 수 있고, 둘째는 행정관료 조직의 미비 상황이며, 셋째는 취약한 기간 산업구조(Infra-structure)입니다. 이를 부연 설명하자면, 거의가 국가소유였던 동독지역의 재산권 문제가 구 소유주의 권리 주장 가능성이 따라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겼으며 이는 곧 위축된, 즉 취약한 산업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률적인 공산당의 명령체계에 익숙해져 있던 동독지역의 행정 관료조직은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허가권 등을 행사하는 서방 세계의 체제에 거의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독의 많은 법률들이 개편되어 새로운 조약을 활성화시켜야 했지요. 마지막으로 동독은 도로망과 텔레커뮤니케이션 매체의 결핍은 상당기간 동안 의사소통 및 운송수단에 적잖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체신부의 노력에 힘입어 전화시정 등은 매우 빠른 시간대에 적체현상이 해소 되었으며, 도로 및 철도와 항공 교통의 수송수단도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니다.

한국도 이전의 동·서독처럼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남북간의 통일을 향한 진전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이 교수** : 물론 동서독과는 지경차

동 점진적인 발전단계를 거쳐왔습니다.

이에 따라 교역자를 대상으로 한 교환방향이 시작되었고, 특히 서독 정부에서 시작한 동독지역 동포들의 인적간접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간접적인 경제지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교육도 건설 및 그 사용료 지불). 그러나 통일이 될때까지 관료들과의 접촉이나 교류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한편 동독정부는 서독지역에 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이를 통해 서방세계(주로 서독)와 교류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회확보와 교도부문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교수** : 본인도 비산에 시달리는 비는 정치·경제·사회적인 면에서 연구할 점이 매우 많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하셨던 통일이후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가능한한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겠지요.

개인의 소견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준비와정이 필요할 테고 심도있는 접근 단계를 거쳐 극심한 격차를 줄여가는 통일방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해 상당부분 앞서 있는 남한의 경제적 우위 입장을 심분 활용하여 북측의 뒤떨어진 경제력을 간접 지원하거나, 또는 상호보완적인 관점에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보조를 취하는 등의 단계적인 접근을 시행함으로써 양측에 존재하는 시정현상들을 점차 해소시켜 보다 원만한 통일과업을 이루어가야 할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아름 교수** : 본인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서독간에는 통일이전에도 제한적이긴 하나 인적 및 물적 교류가 제법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불구하고 서독 정부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동독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자 한 경제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갈수록 높아져가는 동독인들의 망명과 소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동

대회의 방향을 기업 경영쪽으로 옮겨 볼까 합니다.

귀하께서 1981년도 일본 고베대학에서 발표하신 논문을 보면, 기업의 급부 생산에 따른 원가회계원칙 중 경제성 원칙 이외에도 인간 존엄성 원칙 및 환경원칙을 주장하셨는데, 특히 환경보호에 관한 원칙을 강조하셨는데 이는 당시의 상황을 미루어 보건대 매우 미래지향적인 견해였다고 봅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이러한 원칙을 강조하게 되셨는지요?

**아름 교수** : 기술 상당기간 동안에 걸쳐 경제성 원칙(이익 추구의 원칙)이 기업의 급부 생산에 있어서 거의 유일한 척도로 여겨지고 주장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급부 생산을 하는가에 따라 비교되는 것이지요. 다시말해서 생산된 급부 부가가치가 높고도 활용되어지는 단계에서 항상 접하게 되는 인간 및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 경제체제하의 구 동독에서는 실정된 수량적 관점에 따른 생산 제

### 사명감을 가진 창조적 자세, 개념이 정립된 계획적 태도, 실천하는 태도를 갖춘 경영자 필요

구 동독지역에는 현재 혁신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구 서독지역보다 더 높은 생산성 등에 따른 경제 호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 : 최근의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품이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내지 위치가 갈수록 견고해지고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요인이 거론되고 있으나, 최상의 품질을 앞세운 일본제품의 경쟁력 상승요인이 그중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아름 교수** :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60년대에 들어서서 수 많은 일본의 기업(경영자)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지역으로 산업시설을 명목이래



아름 교수

**아름 교수** : 독일은 전통적으로 기업을 부분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보다는 하나의 총체적 개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텐베르크(Gutenberg) 교수의 '기업이론'을 보면 그러한 견해가 아주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듯이, 각 개별분야는 전체적 관점에서 조망되며 이러한 특수 분야는 다시 종합적인 목표에 관해서 통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수년전 미국의 저명한 안소프(H. I. Ansoff) 교수가 본인의 세미나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방금귀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필요에 따라 독립적으로 발전되어온 경영학의 각 개별분야를 기업 전략적 차원에서 총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지요.

그때 우리 학생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경영학의 관심분야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현상만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는 권정되어야 하기도 하나, 이는 항상 기업 전체적인 관점 즉 통합된 시스템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교수** : 경영학의 연구대상인 '기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영자의 위상'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름 교수** : 간단히 말하자면 기업이란 본래 인간의 삶을 보다 값지게 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그 구성요소들이 추구하는 특수목적은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을 구성하는 3가지 그룹을 삼각형 형태로 표현해 보자면, 정점에 있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양측면에서 자본과 근로자가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들 이해 당사자 그룹의 서로 다른 욕구를 합리적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를 계획하고 조정하며 실행하여 나가는 행위가 곧 경영자의 임무이자 권한인 것입니다. 초기의 기업 경영자는 자본가 입장을 주로 대변해 와서 경영학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윤학이라 하여 사회의 비난을 받아 온게 사실이었지요. 그러나 차츰 근로자들과의 위상이 강화되어 가면서 그들의 권익이 법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자 근로자 입장을 대변하는 여러 장치들이 속속 개발되어 경영자는 근로자의 권익 옹호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메콘에서는 심화되는 기업간 경쟁으로 소비자의 입장을 심본 고려하지 아니할 경

Prof. Dr. Dr. h. c. Herbert Jacob은 30년이 넘도록 함부르크 대학교에 불치하면서 학장 및 대학원장 그리고 독일 경영학 교수 협의회 총재 등을 역임하였으며, 수많은 논문과 저서 외에도 전문학술지들의 발행을 통하여 독일 경영학계에서 독보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석학자이다.

근본적으로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이후 구 동독대학의 경영학 교수 가운데 5분의1도 못되는 비율이 계속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나머지는 구 서독측에서 개를 형성하여 새로운 경영학의 기본 정립부터 시작해 학생들에게 점차 실용적 체제하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체제를 갖추어 가야 되었지요.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첫째는 사명감을 가진 창조적 자세, 둘째는 개념적으로 정립된 계획적 태도, 그리고 셋째로 조직적 능력을 겸비한 실천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가운데 첫번째 자질은 경영학에서 가르치기 보다는 그러한 능력을 개발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 가운데 두 번째 자질은 경영학에서 가르치기 보다는 그러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보조의 합조관계가 가능해지도록 기본적인 구조 내지 바탕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곧 경영학자의 사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교수** : 긴 시간동안 유익한 대화의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자주 주어지 보다 바람직한 학문적 발전 방향을 토론할 수 있기를 바라며 대답을 마칠까 합니다.

귀하의 평강과 하시고자 하는 연구활동에 좋은 진척이기를 바랍니다.

<기획·정리=김우우(경주캠퍼스 경영학과 부교수·현재 교육부 파견 독일 함부르크대 객원교수)>



# ◆ '서편제'로 본 한국영화의 전망

## "우리것은 좋은 것이여"

### 전통문화에 진지하게 접근

'제비풀러 나간다'라는 구절이 한때 장면에 유행되게 했던 어느 약산전지 생각났다. 그 땅고에 울던했던 판소리 명창이었던 대사.

"우리것은 좋은 것이여."

또한 한동안 우리의 전통문물과 관련된 대화에서라면 꼭 한바디쯤 끼어들기 마련인 유행어가 되어버렸다. 영화 '서편제'를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그 대사를 마음속으로 되뇌이게 된다.

"아, 역시 우리것은 좋은 것이여."

서편제의 주된 이야기는 우리의 거대한 판소리를 지키고 있다는 소리꾼들의 인생유전이다.

그러나 그 어떤 영화가 서편제만큼 우리것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담아내었는가. 기껏해야 한복입고 왔다갔다 하는 배우들만이 화면 가득히 있거나 역사물을 빙자한 예로 티시즘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서편제'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감탄한다. 그것은 비슷한 소재라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만큼 차이를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서편제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민족의 한이라는 정서를 대변하는 소리꾼들이 가지고 있는 한의 깊이를 얼마나 치열하게 파고들었는가는 점에서 서편제는 부족함이 드러난다.

순수히 상업적이고 오락적인 기능만을 담당해서는 아니라는 것임을 보여준 점도 사랑받을 만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특이한 한국영화계에 있어 '서편제' 이전까지도 충무로에서는 전통이나 예술이나 하는 것을 다루면 흥행에 실패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다. 임권택 감독 스스로도 어느 일간지의 인터뷰에서 잊혀져가는 판소리를 다룬 영화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의심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서편제'는 개봉 3주 만에 8만여 관객을 동원하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관객들이 무척 다양하다는 점이다. 대학생은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주부,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평소 극장을 찾지 않았던 관객까지 몰려 들어온다는 점에서 '서편제'의 성공은 참으로 놀라운 성과인 셈이다.

이제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뒷날에 있을 것이 있다면 '서편제'가 성공했다고 해서 주춧돌 같은 소재는 흥행에 성공한다는 틀지 않은 영화기획의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전의 한국영화계를 보더라도 어느 하나가 성공하면 우르르 그 아류작들이 쏟아져나오는 것이 상례였는데 물론 질적 인 면에서 뛰어나다면 문제가 없었지만 장사속이 드러나 보이는 작품도 비일비재였다.

그리고 더 욕심을 부린다면 현대물을 다룬 영화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우리것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영두에 두면서 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의 정서, 우리의 전통은 바로 우리의 생활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 '서편제'는 우리의 소리를 판소리를 지키겠다는 소리꾼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에 진지하게 접근했다는 점에서 사랑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

# 틀어치기 전강에

# 4·19 혁명 유감

유강진 <사회대 정의과 교수>



서른세대를 맞은 4·19혁명도 5월이 오면서 하나의 사건으로 역사에서 퇴장하는 것 같아 왠지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진다.

한 세대를 넘겨 비로소 탄생한 문명정부도 그때 그 시절 혁명적 투쟁을 회상하듯 대통령이 처음으로 4·19묘역을 참배. 그곳을 '성역화'할 것을 밝혔고 또 학교마다 어느새 보드 나온 행사를 치루어 나름대로 그 의미를 되찾은 것만은 사실이다.

'의거'라는 말은 정의에 입각하여 분연히 일어난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불의에 대한 당연한 속성의 표현으로 구체적인 이념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양심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정말 4·19는 자유당 정권의 독재에 항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가. 그렇다면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게 한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4·19의거'는 그것으로 원인이 종료되어 버리게 되는 셈이다.

사실 독재정권을 타도하였다는 것은 '4·19 혁명'의 대전제이지 그 혁명의 완수는 아니다. 혁명으로서의 4·19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이라고 보아야 한다.

무엇 또는 혁명에서 볼 수 있듯이 혁명이 한꺼번에 이루어 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부단한 심화과정, 확대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대혁명의 진전이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프랑스로 혁명이 왕정을 타도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그 혁명의 승교한 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4·19혁명도 처음부터 혁명과정의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는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4·19를 '미완의 혁명', '유산혁명'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본질을 보다 더 심층적인 민주주의의 재창조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혁명성을 지니고 있다. 4·19혁명의 민족적·민주적 사회발전 그리고 국민을 위한 민주화라는 이념적 가치라고 규정한다면 분명 4·19는 '혁명'이야말로 한다. 따라서 33년만의 4·19는 역사의 무덤에 묻히지 않고도 찾아오는 혁명이라고 믿고 싶어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으로만 헌법전문에 기록된다는 것은 그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산란한 5월을 맞으니 더더욱 4·19혁명의 위치를 되찾는 작업이 하루 빨리 진행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헌법전문에 개정부터 말이다.

주인공들의 애절한 삶도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지만 무엇보다도 '서편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전통적인 가락인 판소리와 끝없이 펼쳐지는 우리 산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재발견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편제는 우리의 소리인 판소리를 지키겠다는 소리꾼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에 진지하게 접근했다는 점에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친히 관람했을 정도로) 잊혀져 가던 판소리를 국민의 기억속에 되살려 놓는데 기여함으로써 영화가

다양하게 다뤄졌다고 기여하는 바가 크다. 사실상 93년 충무로에서 제작되고 있는 영화들, '그 여자, 그 남자, 그 여자' 등은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서편제'는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소제로서만 우리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면에서 깊이있게 우리의 것에 접근한 영화가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 모두의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

김유진 <민족영화위원회 회원>

# ◆ 독자투고 '여성과 성의 재인식'시리즈를 읽고 나서

# '페미니즘 홍수'속 시기 적절

## 두번째와 네번째 글 내용상 상충되는 면 엿보여 아쉬움

요즘은 페미니즘이 상존하고 있다는 논의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여성 스스로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이 진전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해가 아니고 염미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체적 글의 흐름은 현대 여성의 삶 '적극성' '능동성'에 관한 우려이다. 그러면 두번째 글을 인용해 보겠다. "생물학적 성 차이가 남성과 여성간의 역할을 고정시킬 만한 충분한 조건

...어떻게 보면 다른 결론을 끌어 내리는 서로 상충된 글이 여성과 성의 재인식이라는 글로 묶여질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실제로 세번째 글에서 주장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남성은 남성성 공적영역의 부분을 담당 하면서 성취동기만을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결과와 여성은 사회적영역에서 인간적 유대, 정서적 인간관계를 가져내야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 앞에서 지적했던 대로 인간에게는 모두 양성성을 가지며 성취하고자하는 욕구와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자하는 욕구 모두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등으로 고정되게 사고함으로써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 형성을 어떻게 만드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이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는 핵가족사회에서는 부분간의 공통된 화해의 빈곤으로인한 대화단절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장애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세번째 글에서 또 한가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남녀관계를 폭력적이고 억압하고 있었던 기존의 사회관행과 금기들도 함께 사라져 버렸다. ...도덕의 델로 인하여 욕망의 불꽃기는 예술이 되고, 시가 되고, 문학이 되고, 과학이 되고, 기술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도 여성다움은 물론 인간정신의 비상을 위한 방편일 수 있는 것이다. ...그 별거없는 욕망을 위하여 사회적 도덕의 멍을 한사코 무너뜨리려한다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점이다.

여기서 사회적, 도덕적 멍은 성의 규범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멍, 기존의 멍은 이중적 규범일 뿐이었다. 남성은 용인되고 여성은 용인되지않는 규범, 네번째 글을 인용하자면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을 지책한다. 이런 성의 이중규범 속에서 매춘업과 영청난 양의 성의 상품산업이 버틸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여성에게만 사회 도덕적 멍을 원하고 여성다움을 원한다는 것은 기존의 성의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여성이 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간의 상호작용인 것이 아니라 일방이 다른 일방을 향해 베푸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난무하는 성폭력과 상품문화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여성을 성의 대상화하려는 잘못된 관행과 문화 매체들의 허구에서 벗어

강정민 <공과대 산업공학과>

# 성과 사랑은 서로간의 상호작용이지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다

이 되지 못할 뿐더러 인간은 본래적으로 양성의 성향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네번째 글의 내용은 "우선은 경험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으면서도 자연의 섭리, 신의 질서의 이들과 그 절대적 권위를 빌려 우리의 사고 태도, 행동 등 전반을 구속해 온 남녀관계와 관련한 구수된 진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해가 아니고 염미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체적 글의 흐름은 현대 여성의 삶 '적극성' '능동성'에 관한 우려이다. 그러면 두번째 글을 인용해 보겠다. "생물학적 성 차이가 남성과 여성간의 역할을 고정시킬 만한 충분한 조건

...어떻게 보면 다른 결론을 끌어 내리는 서로 상충된 글이 여성과 성의 재인식이라는 글로 묶여질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실제로 세번째 글에서 주장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남성은 남성성 공적영역의 부분을 담당 하면서 성취동기만을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결과와 여성은 사회적영역에서 인간적 유대, 정서적 인간관계를 가져내야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 앞에서 지적했던 대로 인간에게는 모두 양성성을 가지며 성취하고자하는 욕구와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자하는 욕구 모두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등으로 고정되게 사고함으로써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 형성을 어떻게 만드는 것에

# 성을 대상화 하려는 관념과 문화매체들의 허구에서 벗어나야

관념을 지책한다. 이런 성의 이중규범 속에서 매춘업과 영청난 양의 성의 상품산업이 버틸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여성에게만 사회 도덕적 멍을 원하고 여성다움을 원한다는 것은 기존의 성의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여성이 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간의 상호작용인 것이 아니라 일방이 다른 일방을 향해 베푸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난무하는 성폭력과 상품문화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여성을 성의 대상화하려는 잘못된 관행과 문화 매체들의 허구에서 벗어

강정민 <공과대 산업공학과>

# 외국논문 편역, 선 이해에 도움

## 분석심리학과 선의 비교 연구

한미타로 이 책을 요약하면 '불교나 선은 철학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

서양철학과 선

구한 논문들을 번역·수록한 것이다.

지식과 지혜(Sophia)에 대한 끝없는 사랑(Phil)이란 뜻의 철학(Philosophy)은 모든 사물의 근거가 되는 궁극의 실재를 해명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한다.

해 사람들에게 언어에 의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또한 선(禪)이란 종교 교의의 긴장관계에 있는 것으로 총의 초월성에 입각하여 교의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실재의 초월성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불교는 종교(宗敎)다. 여기서 종(宗)은 깨달음의 내용이 되는 법(法)이며 도덕·윤음·의무·바른 행위·종교적 수행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교(敎)는 이러한 종(宗)을 풀용한 방법과 수단(方便)을 통

선(禪)이란 종교 교의의 긴장관계에 있는 것으로 총의 초월성에 입각하여 교의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실재의 초월성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한다.

이책에서는 앞서 정의한 불교와 선을 서양철학과 비교

서광모드

60eme ANNIVERSAIRE 1933 LA CHEMISE LACOSTE

라코스트 탄생 60주년 기념

# 5월의 행복 잔치

LACOSTE

## 5월에는 두배로 행복해집니다.

**행복잔치** 행복을 찍으세요, 기쁨을 나누세요. 행복이 담긴 사진공모전

가족, 친구, 연인... 가까운 사람과 행복한 한때를 사진으로 남기고 라코스트와 함께 그 감동을 오래오래 간직하십시오.

- 내용: 1) 가장 행복한 모습 또는 아름다운 사진이 담긴 사진 2) 라코스트의상과 함께한 멋진순간의 모습
- 사진규격: 흑백, 컬러, 규격에 제한없음
- 보내실곳: 1) '행복이 담긴' 사진 2) 사진과 관련된자료(촬영일자, 장소, 제목 또는 사연) 3) 보내시는 분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성명)
- 기간: '93.5.3(월)~5.31(월)까지
- 보내실곳: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60-25(주)서광모드빌딩(819-8043) 5월의 행복잔치 담당자 앞
- 심사위원: 사계 권위자
- 입상자발표: '93년 6월 14일(주)스프링스톤 제1 및 개별통지
- 기타: 응모작은 일체 반환치 않으며 입상작의 권리는 당사자 소유함.
- 시상: 대상 1명 상금 100만원 및 라코스트 피케셔츠 7매 금상 2명 각 상금 50만원 및 라코스트 피케셔츠 7매 은상 2명 각 상금 30만원 및 라코스트 피케셔츠 7매 동상 2명 각 상금 10만원 및 라코스트 피케셔츠 7매
- 대상을 제외한 각 부문 1명은 라코스트의상이 담긴 사진공모전 선정 참가상 60분을 선정하여 라코스트 피케셔츠 각 1매씩 증정.
- 주최: 주식회사 서광 ● 후원: 조선일보사

**행운잔치** 행복을 입으세요, 무지개를 잡으세요. 7색의 라코스트 피케셔츠 증정

- 대상: 라코스트 피케셔츠 이상의 품목을 구매하시는 모든분께 품목당 행운권 1매 증정
- 시상: '7색의 무지개색상 피케셔츠'를 60분씩 증정 라코스트 품목을 사실 때 행운권을 드립니다. 행운권 소지가 중 60분의 고개를 추첨하여 한권, 한분씩 7색의 라코스트 피케셔츠를 증정합니다.
- 장소: 라코스트 전국매장
- 기간: '93.5.5(수)~5.24(월)까지
- 입상자발표: '93년 6월 14일(주)스프링스톤 제1 및 개별통지



# 상반기 학생대표자회의 열려

## 학생회비 8천원 인상안 가결, 교지 예산 동결 학교발전 장기계획 마련 등 총노선 결의

93년 상반기 정기 학생대표자회의가 각 단위 학생회장장 학생대표자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원흥관(E102)에서 열렸다.

이달 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학생회비 인상 △교지대 인상 △총노선 채택 △의견개선운동 결과분석 보고 △총학생회 집행부 인준 등 이었다.

학생회비 인상안의 기조별제를 한 총대의원회 외장 정주영(아간부역4)은 "변화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생의 건설을 위해 학생회의 물적토대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지난 7년간 동결된 학생회비는 변화된 시대에 맞게 학생회가 재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구 실체 쓰여지는 사업비 만큼 8천원선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하고 '이

를 통해 학생회 예산안 공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회비 인상안에 대한 표결에서 참가대표자 53명중 4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교지대 인상안건에서 교지편 집위원회 편집장 신동준(농경3)은 인상요인인 '연2회 발간'의 안정적 발간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예산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필요한 예산의 총량과 안정적인 교지발간을 위해 현재 학기당 1천원인 교지대를 1천7백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는 교지의 질적향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문제에 대한 이분화(사회4) 사회과학대학생회장의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일임하

지는 수정동의안은 부결됐다. 교지대 인상안에 대해 학생대표자들은 찬성 9표, 반대 31표, 기권 13표로 부결시켰다.

또한 이번 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대표자들은 총노선으로 △민족통일 지주총동 운동 원년 선포 △학생회의 중심이동

을 통한 대중운동의 제자리 찾기 △생활권정의 활성화와 학생의 민주정치 실현 근거지화 △중구시민의 대학, 동국대학을 중구시민의 자랑으로 만들 기 △미래학원 미래동국의 모습을 담은 장기적인 동국발전 계획안 마련등을 결의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상반기 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학생대표자 53명은 총학생회 총노선과 학생회비, 교지대 인상안에 대해 논의했다.

# 불교교권수호협의회 발족

## 교권침해 사건 재발방지위해

불교교권수호협의회는 준비위원회(위원장=송산스님·중앙승가대 교수)가 지난달 26일 실천불교승가회, 석림회, 동림회, 중앙승가대 학생회동 승가단체 34개와 대한불교청년회, 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을 포함한 재가36개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발족했다.

불교교권수호협의회는 의의에 대해 기획위원회 김경호(불교대학생회장 불교)는 '근체불사신 이후 불교도들의 교권수호 의지를 지속적으로 결의하기 위한 상설기구'라고 밝혔다.

또한 이단체는 향후 공청회와 정부에 대한 공개질의, 각종 불교교권침해사태수정등을 하게되며 본격적인 기구결성을 위한 조직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 교육환경개선 서명운동 벌여

사범대학생회(회장=유치건·역4)는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서명운동을 지난 29일부터 5월3일까지 시작했다.

'교육환경개선'의 내용은 △시정락 교육실습실은 하계 방학에 착공 △사대독서실 냉·난방시설 원비 △강의실 방음 천장설치와 책상상교체 △학림관 화장실 개보수 △강의실안에서 급원 △학사기 마신것 되 거가기 △학사분위 조성 △독서실 효율적 이용과 물품 아끼기 등이다.

사범대학생회는 서명운동을 통해 '교육환경개선'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측에도 요구할 계획이다.

# 농과대학생회 농활교양학교 개최

농과대학생회(회장=반춘·익4)는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농활 교양학교'를 한다.

3일은 농활의 의의와 목적, 비디오편집, 농대 중흥안 논, 4일은 새내기(일상활동, 분반활동), 6일 단거리와 적극리듬 교양, 7일은 현장성과 수업개방에 대해 강연한다.

총학생회와 함께 주관하는 농활학교는 10일 농민이 원하는 농활, 11일 분반활동을 개회한다.

# 수중탐험연구회 경포로 춘계탐사

수중탐험연구회(회장=정종수·역3)는 춘계탐사를 지난 4일부터 오는 9일까지 경포로 떠난다.

이번탐사의 목적은 경포근해의 해저환경과 동식물 자원의 생태계조사 및 관찰을 위하여 우리교의 수산자원에 대한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이다.

# 해설 봉원사 부지매각 서명운동

## 종립대학 걸맞는 재정지원 절실

지난해부터 산발적으로 제기된 바 있는 봉원사 부지매각운동이 제25대 총학생회 차원에서 지난 2일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교권수호협의회 준비위원회에는 기획위원회에 김경호 교수를 비롯해 집행위원회에 장영(불교4) 교수 박주용(불교2) 교수를 본교 재학생들도 참여하고 있다.

봉원사는 조계종과 대교종 양종단간의 분규사찰중의 하나이다. 부지매각을 둘러싼 봉원사의 문제점은 법적소유권을 조계종이 갖고 있는 상태이지만 대교종이 50~60년대 비구·대처 분규 이전부터 점유·관리해온 사실이다. 조계종과 대교종의 이러한 사실분규는 80년대 들어 사찰의 급변에 따른 교계의 침체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분규해결은 시대적 과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또한 명분과 실리추구를 위해서도 분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결집을 보게 됐다. 이러한 양종단의 노력은 지난 89년 30년 분규를 마감하는 '불교중흥을 위한 양종단간의 합의'가 통과됨으로써 해결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89년 11월 22일 문공부의 주재하에 양종단의 총무원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합의안중 봉원사문제는 5대 5로 분할·관리할 것을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양종은 재산처리에 합의하는 명분을 불교중흥사업에 두고 불교광흥, 승가대학, 불교방안 등에 필요한 많은 재원의 마련에 분규사찰문제해결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불교계의 공명관심을 끌어난 것이다.

하지만 90년부터 양종단의 자체분규(특히 조계종단의 강·남북 총무원내사) 및 대내외적 문제요소들의 복합적인 상황에서 분규사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종립대학의 교육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곧 동국중흥이며 불교중흥의 기틀을 다지는 대안이라는 중론을 간파해 서는 안될 것이다.

(취재부)

# 수도권지역 노동절 기념대회 해고노동자 복직등 요구

'백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가 수도권지역 노동자 학생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노협, 전교조등 5개노동단체 공동 주최로 연세대 노전극장에서 지난 1일 열렸다.

지난 58년 이후 35년만에 처음으로 정부당국의 정식허가를 받아 치러진 이날절회는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최대 인원이 결집한 집회였다.

행사 참가자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활과 권리가 보장되고 산업환경이 민주적 노사 관계가 정착될 때만이 진정한 사회 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사주최측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비대해진 재벌의 횡포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민의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금용실명제 실시와 30대재벌 총수 재산공개 △복수노조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삭제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보장 △구속노동자 석방과 해고자 전원 원상복직 등을 촉구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연세대에 서 여러도국회의사당까지 평화행진을 했다.

# 학교당국 특례 재입학 56명 허가 복대위등록금 면제혜택등 합의

학교당국은 제적학생 특례재입학에 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지난 26일 마치고 재입학 허가자 56명의 명단을 확정공개했다.

신청자에 대한 학과, 대학원 심사를 통해 확정된 이들은 서울엘비스가 최재성(불교4·88년 총학생회장) 등 총 53명이었고 경주대학교는 문철성(국사3) 군을 포함한 3명등에 재입학이 허가됐다.

이런 재입학 허가 절차는 중구·정4의 추가시험실시 및 등록금면제등의 요구사항으로 학교측과 마찰을 빚었으나 지난 21일 학교측의 협조사항 집행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사정받고 있는 지도 해소)는 재입학허가 등록금 면제와 이후 2학기 에 걸쳐 수업료 면제혜택을 부여한다 △학점취득의 불이익을 막기위해 해당교수 재량에 따라 추가시험 실시 및 별도과제출제평가 등을 갖출 수 있다'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예상외로 이번 재입학 허가 대상자가 56명에 그친 것은 87년 제적학생 대부분이 재입학을 학교 권유에 따라 2학기 로 미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 남충련 학생 단식농성 광주항쟁 진상규명 요구

광주항쟁 진상규명 요구

남충련 학생 단식농성

남충련 학생들은 △광주항쟁 진상규명 및 피해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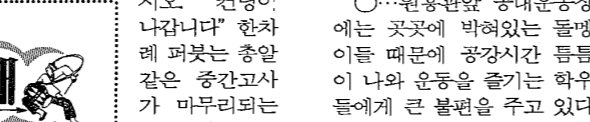
남충련 학생들은 광주항쟁 진상규명 및 피해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 화합이 필요한 때

화합이 필요한 때

화합이 필요한 때

화합이 필요한 때



# 졸업사진 촬영일정 안내

경주캠퍼스 졸업준비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4학년 과별 졸업사진 촬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단체·스냅사진 촬영일정

일자	오전10시	오후2시
5/3	철학과	일어일문학과
4	한문학과	사회복지학과
6	국어국문학과	
7	고고미술학과	국사학과
10	중어중문학과	미술학과
11	영어영문학과	
12	생물학과, 화학과	조경학과
13	전자계산학과	산업안전공학과
14	법학과	행정학과
17	정보산업학과	회계학과
18	경영학과	
19	경제학과	
20	무역학과	
21	관광경영학과	불교학과
5월24, 25, 26, 27, 31일(재촬영학과 촬영)		
6/1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2	불교이동학과	

2. 학사도 사진은 각과 해당일자에 개인적으로 천연사진관에서 촬영.

# 부정입시·교육비리 척결을 선언하며

부정입시·교육비리 척결을 선언하며

최근 사회여론의 주목 속에 지탄이 되고 있는 대학입시 부정사건에 즈음하여 대학행정 입선에 선 대다수 교육노동자들은 적잖한 심정으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

문제가 된 몇몇 대학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입시부정이 행해졌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부인 할 수 없다. 파행적인 재정운영과 경연의 시너지를 지탱해왔던 사학기구의 구태로 볼 때, 부정입시는 권력의 비호와 방조하에 공공연하게 저질러졌음이 자명하다. 또한 교수채용시 급품수수, 학과신설 및 학생정원 증원의 교육부 로비 등 대학안에 각종 비리가 민연해 있음을 우리는 부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교육일꾼으로서 긍지와 사명의를 갖고 북북히 업무에 충실해 온 대다수 교육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은 입시부정 등 대학비리 척결과 그 발전적 개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부정입시에 연루된 비리관련자들은 엄정한 사법조치를 받아야 하며, 대학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사법당국에 부정입시관련 수배자들을 조기에 검거할 것과 아직도 대학 인내에 견디는 입시부정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2. 교육부는 역대 정권아래에서 입시부정을 방조하고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은폐·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제기준을 국립교육평가원에 서 벌어진 단안출시사건으로 입시부정의 주범임을 관망되었다. 이에 우리는 부패한 교육관료들이 일소되지 않는 한 진정한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는 지난 2월에 비공개로 제출된 입시관련 감사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부정입시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그 진모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3. 대학의 재정이 부정입시를 옹호하는 당위적 빌미로서 거론되는 것은 부정부패가 연연되어 사회에서 부도덕한 공범의식에 호소하는 공생한 변명이다. 이제 사학재단 및 대학은 재정의 파행적 집행을 막고 교육을 위한 자금을 건넌하기 위해서 에 ·결산을 전면 공개하여야 한다.

4. 상명수 대학에서 금권·관권을 동원한 것은 부도덕한 수단으로 교수직이 거래되고 있으며, 학과신설과 학생정원을 위해 매년 학생정원 조정기간에는 각 대학 관계자들이 교육부 로비에 열안이 되고 있다. 우리는 대학비리의 핵심적인 존재들이 대학의 실체로서, 유능한 인재로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을 개편하며 대학비리 척결이 대학을 지주적인 학원으로 개편하는 출발점임을 강조한다.

5. 과거 정권아래에서 부와 권력을 독점했던 관제, 체계, 경제 동소 사회지도층 세력이 부정입시의 주요한 실수자라는 사실에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교육이 부패된 기득권세력의 부정한 세습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최근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제도 실천 등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조치를 현 정부는 강력히 시행하여야 한다.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은 입시부정을 비롯한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대학비리척결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고발장구 설치, 입시부정 공개수배 등 전 대학인과 함께하는 실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1993. 4. 27.

입시부정과 대학비리 척결을 위한 고 발 창 구 대학관계자, 학부모, 학생, 시민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고발창구 전화번호 : (02) 766-3962 주소 : (136-020) 서울 성북구 성북동 63-44

실의 뒤안길 ②

최고수준의 '훈민정음 강의'로 유명

이동림 선생님은 정년 퇴임을 하신 날 퇴임사의 첫 마디를 이렇게 꺼내셨다. "지난 30년 간 교육 교수 생활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모두 허당(虛堂?)이었다" 그 말씀의 깊은 뜻은 쉽게 헤아릴 수 없었으나,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들려왔다. "떠날 때는 앉았던 자리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말고 떠나야 한다"



이동림 <전 국어국문학과 교수> <역력> 1958. 3. 1~1988. 2. 28 본교 교수로 재직. 교무처장, 문과대학장, 대학원장 역임.

선생님께서 정년을 앞둔 마지막 학기를 마무리 준비로 분주하게 보내셨으며, 정년을 맞이하는 마지막 달 둘째주일에 연구실을 맡김히 비워주고 그 달 네째주일에 정년 퇴임식을 가지셨다. 정년 퇴임 기념 논문집인 '국어학 연찬'을 만들면서 이제 아호를 알려 주셔야 책의 표지를 인쇄할 수 있다고 독촉을 했을 때 선생님께서 "그렇게 귀찮게 할려면 虛堂(허당?)이라고 해두라" 이 하셨다.

퇴임사 첫 마디 '허당'과 아호 '虛堂'이 우리 후학들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시려는 것이었는지는 두 고두고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였다.

선생님의 연구실과 선생님의 서재에 있던 장서들은 두 명의 조교를 동원해서 한 학기 내내 카드를 만들고 분류를 하여 우리 대학 도서관과 우리 학교에 정년퇴임식 직전에 고스란히 기증을 해 주셨다. 우리 대학에서 준 월급을 받아 가지고 책을 사서 읽었으므로 이제 그 책을 대학에 놓고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책을 불일이 생기면 우리 도서관에 나오면 된다는 것이 선생님의 지론이었다. 몇 달전 나는 국어국문과 관계 학회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선생님이 정년퇴임식 바로 전에 가급적 고쳐서 각 학회를 찾아가서 그 동안 빌린 학회비들을 모두 내 주시는 일까지 잊지 않으셨다는 말을 들었다. 선생님의 이런 마무리 정리는 평소 애용하셨던 뜻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조용히 진행하셨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 우리 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직은 한국 국어국문학 제1세대 저명학자 전원으로 짜여진 한국 제일의 강령이었다. 선생님은 제2세대의 신진소장학자

선생님의 학문은 정확성과 치밀성을 바탕으로 내밀한 창조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 단적인 예가 없어버린 국문 '동국정운'의 재구성이다. 선생님은 '동국정운'의 2-5권을 정확하게 재구성해 내고 이 책의 저본이 '고금운회거요'라는 사실을 밝혀 한국 학계를 깜짝 놀라게 하신 일이다.

선생님은 학생을 바라보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다. 재학 중 선생님께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학생으로 짐작은 제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졸업 후 상당한 성취인이 되었다.

선생님은 우리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위로할 일이 생기면 꼭 불려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축하할 일이 생기면 축하할 사람의 주변 제자들까지 불러서 축하를 해주셨다. 그러나 우리들이 선생님을 모시려고 할 때는 항상 건강 문제를 내세우시면서 사양하셨다.

미국 사회에서 부부 모두 전문의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는 어느 내과가 선생님을 모셔다가 정성껏 보살피던 덕택에 선생님의 건강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지난 해 잠시 귀국하셨을 때 '국문 자료의 두 가지 서열에 관한 해명'이란 논문을 가지고 오셔서 국어학 제23호에 실도록 제출하셨다. 며칠 전 새벽에 전화로 '동국정운' 23자모의 획질과 그 해석'이란 논문을 국어국문학회 전대회(6월 5-6일 충남대 취봉홀)에서 발표하시겠다고 통보해 주셨다. 아주 건강하신 몸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학계에 밝혀 두고 싶은 것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전 회장을 놓으셨다. 참으로 반갑고 호된한 일이었다.

전대회 마지막날(6월6일)의 맨 끝에 선생님의 발표 순서를 놓아서 선생님의 발표의 의미를 같이 전회까지로 국어국문학회 이사회의 결의를 보았다.

그 날이 기다려진다. 임기중 <문과대 국문과 교수>

대우리

드스틴 호프만 주연의 미국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는 많은 이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영화중의 하나일 것이다. 배우들의 호연도 불거리지만 그보다도 따뜻한 부자의 사랑을 표현하는 대사 하나 하나가 가슴에 와 닿는다. 한 아이의 아버지 테드 크레이머(드스틴 호프만)는 아내와 이혼하고 7살짜리 아들 빌리를 혼자 키우고 싶어 현실적인 사랑을 쏟는다. 영화속의 테드는 허리를 굽히고 아이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얘기한다. 사소한 아이의 고민이라든지 아이의 궁금증과 아버지의 이혼문제까지 법적인 어떤 이야기라도 아이의 수준에 맞게 말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아이의 어머니와 양육권쟁이가 법정 문제까지 비화됐을때도 아이가 이해할

눈높이 사랑

수있도록 부모의 입장을 설명한다. 테드가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네 아버지상과는 사뭇 다르다. ▲우리의 아버지상이라고 하면 유포문화에 기초한 엄하고 근엄한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는 옛날 밧이고 요즘엔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는 아이후 사랑만 알았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음을 느끼게 한다. 부정입학한 자식들은 지학과 부끄러움에 자신의 인생에 회의와 느끼고 있을 것이다. 진정 이시대의 부모상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현실의 단면이다. 아이의 일을 아이가 어렵다고 상상하지않는 부모가 많다. 어린 지식과 상의한다는 말 자체도 우스운 소리로 치부하는 부모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폐쇄한 이시대의 부모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자식의 삶이 부모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본다. ▲영화속의 임이처럼 '크레이머'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상의 정립을 위하여 무엇 하나를 배우게 된다. 7살짜리 아이에게 사회와 사랑을 설명하는 허리굽힌 아버지. '눈높이 사랑'이다. <水>

농민투고

"벚꽃대신 진달래·무궁화 심자"

삶의 터에 어김없이 자리잡은 벚나무 일본 국화에 의한 민족정서 침탈 경계

꽃피는 사월이다. 남쪽에서 시작된 봄의 축제는 북으로 북으로 이어져 오고 내 고향 영남에도 사월이면 어김없이 복사꽃 잔치가 열린다. 눈이 번쩍 복숭아밭, 계단식 친수담, 민들레산에도 강가(하천부지)에도 연봉홍빛 복사꽃은 과일 수확에 기대가 부른 농부산이들의 들뜬 얼굴들을 모아놓은 복사꽃 잔치의 기쁜 얼굴들처럼 희망의 꽃나지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것은 남쪽에서 시작되는 요란한(?) '벚꽃 축제'에 대한 것이다.

가 열리는데 그때에 벚꽃의 무리는 실로 장관이라 할 수 있으며 전국에서 사람이 모여들어 벚꽃을 감상한다. 그러나 이 벚꽃은 왜국(일본)의 국화가 아니던가? 오랜 역사속에서부터 왜국의 대륙침략에 대한 욕망이 한반도를 통치하고서는 달성되기 어려우므로 우리 민족과 국토는 왜국에 의해 남쪽으로부터의 침략을 많이 받아왔지 않나 싶다. 그리고, 인진왜란 당시 왜국의 남해해에서의 대패는 그들의 해상권 장악에 대한 욕망을 가증시켰을 것이요 대륙침략의 교두보라 할 수 있는 한반도의 점령을 위해서는 일차적

으로 남해안의 부두부터 열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결과 일본이 조선을 점령한 후 제일먼저 남해안이다 그들의 국화인 사쿠라(벚꽃)를 심었을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우리 민족문화의 고요한 경주도 예외는 아니다. 민족문화의 유물과 자원은 불국사 입구에도, 석굴암 입구에도, 보문관광단지에도....., 벚꽃은 호드러지게 피어있고 시민들은 벚꽃 축제를 연다.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오랫동안 티를 지고 있었던 관공서나 학교, 고교, 공원에는 어김없이 벚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다.

문화시평 민족문화운동 새로와 저야 한다 '공연한다'는 자족감보다 질적향상 필요 변화하는 대중문화에 적절한 대응 못해

의·식·주중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활동을 광범위하게 문화라 지칭할때 인간은 문화라는 공간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자연적으로 발생해 현대시 문학, 음악, 미술, 무용등에 영향을 준 발라드(Ballad Dance)는 함께 노동하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 생겼으며 노동을 주로 하던 우리민족에게 노동요는 활력을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문화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이제 우리는 민족문화의 참뜻을 찾고 그에 부응하는 참문화의 계승을 좀더 과학적으로 검토할 때에 이르렀다. 민족문화는 역사의 발전과정의 원동력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정치적 억압속에서도 노동으로 삶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발전 또한 담보해 왔던 민족문화의 삶을 대변한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대중문화는 현실성과 사회의식의 색채를 띠면서 70년대 민중부흥운동을 거쳐 민족적인 미의식과 그 양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및 현대적 계승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민족문화운동은 70년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은폐된 부조리를 폭로하고 사회 변혁세력의 색채를 띠면서 70년대 민중부흥운동을 거쳐 민족적인 미의식과 그 양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및 현대적 계승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활동이 역사의 물결을 타고 운동성향을 띤 문예중우리들이 산발적으로 집적인 향상을 보이면서 문예대중조직으로 자리잡은 것이 민족문화운동이다. 그러나 대중적 매스미디어 사회에서 퇴색되어가는 민족문화와 극적운을 알 수 없는 계급주의문화가 유

차 침체국면을 맞게 됐다. 수입된 무분별한 외래문화, 젊은 층의 획약적 소비문화가 늘어가는 이 사회에서 민족문화는 어떠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이것이 현재 문화운동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그렇다면 민족문화운동의 참뜻인 감동과 사상의 자유로운 표출을 유지하면서 대중과의 유대관계속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지금껏 전문성 축적에 의한 질적 향상이 더딘것이 사실이었다. '공연한다'는데에 의의를 두는 시기는 지났다. 대중들의 정서도 눈에 띄는 정도로 고급화된 시점에서 현상적인 출발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재검토하고 이를 차츰 수정해 나가면서 역량을 강화시켜 대중을 이끌어 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민속에서 실천적 움직임이 선행될 때야만 비로소 모두의 공감대를 얻고 민족문화의 정적과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백찬주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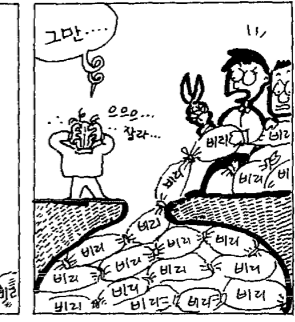
문학단신

새로 나온 책 <김구의 나라> 1948년 여순반란 사건에서부터 1950년 한국전쟁까지의 태풍같은 격동의 세월을 시대적 배경으로 좌우의 정치지도자들과 그 주위의 갈등, 암투를 다룬 비극적인 현대사의 고난의 연대기. <지리산·5천원> <사랑과 지혜의 나무> 등서고 글을 통해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고 항상 존재하는 우정, 모험, 용기, 방황, 신 등의 이야기들이 시공을 초월하여 사랑과 지혜의 메시지를 던져준다. <사계절·4천 8백원>

공연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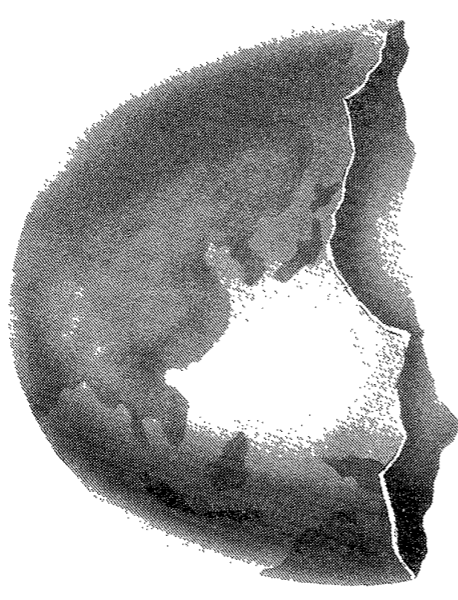
<어느 아버지의 죽음> 현대극의 고전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을 우리 사회적 현실과 정서에 맞도록 각색한 극. 경제성장의 뒤안길에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날로 일그러져 가는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가동인 아버지의 기대와 좌절, 그리고 지식과 갈등을 다룬 총체적 사회극이다. 오는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오후7시 30분, 호암아트홀. 751-5555, 5557

범고



최결인 <21>

"어떠한 성취도 도전 안에 있다"



도전하지 못할 세계는 없습니다. 패기에 찬 젊음으로 무한한 세계에 도전하십시오. 젊음의 가치는 성취보다도 그것을 향한 도전에 있습니다. 목표자체가 성취라기보다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에너지가 곧 삶의 성취인 것입니다. 특히 최선을 다해 매진하는 젊음 앞에는 목표보다 더 좋은 결과가 놓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젊음의 패기와 진취적인 열정으로 나아가십시오. 젊음의 무한한 가능성은 바로 그 도전적인 패기에 있습니다. 도전적인 패기를 지닌 젊음은 창조적인 열정에서 남다른다. 각자 자기소신과 목표를 지니고 최선을 다하는 도전의열정-종합건축자재에서 도로, 건설분야까지 미래의 꿈을 일구어 가는 금강·고려에는 바로 이런 젊음들이 일구어내는 희망찬 내일이 있습니다.



금강·고려

▲철사금강 ▲인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